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죄된 인생들 생각할 수도 없는 허물투성이인 인생들을 한 없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독생자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들로 변 화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 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 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 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23호 2013년 2월 2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구원과 용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대서사시!

CT, “인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선포”가 영화 핵심

신앙의 눈으로 본 ‘레미제라블’

지구촌에는 지금 ‘신드롬’ ‘광풍’ ‘열풍’으로 회자될 만큼 영화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이 트렌드로 각광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러닝타임 2시간30분 동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만든 영화 ‘레미제라블’은 “눈을 감고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찬사까지 받고 있다. 헐리우드 탑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노래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

‘장발장’으로 대표되기도 하는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문학의 거봉’ 빅토르 위고가 1862년 발표한 작품으로 ‘인간의 구원’, ‘용서’, ‘희생’, ‘사랑’, ‘헌신’과 같은 인류애적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혁명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19세기 프랑스 민중들의 빈곤한 삶과 권력의 횡포, 이에 맞서는 젊은이들의 희생, 그리고 이 같은 배경 안에 벌어지는 장발장의 헌신과 사랑, 용서의 삶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레미제라블은 그런 주제의 힘만큼 크리스천들에게 던져주는 교회적인 메시지도 강하다. 또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들도 상당하다.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던 장발장의 이야기는 책을 읽지 않은 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장발장(휴 잭맨)과 그를 주시하고 감시하는 자베르(러셀 크로우)의 악연은 영화 내내 이어진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이나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장발장은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또한 법에 대한 원칙적인 가치만 가진 자베르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레미제라블’이 무엇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은총대를 훔쳐간 장발장을 비난하기는커녕, 두 개의 은총대를 손에 쥐어주며 사랑을 베푼 한

미리엘 신부의 너그러운 용서의 의미는 이 영화에서도 단연코 빛을 발한다. 용서함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한 동안 잊고 살았

던 잘못과 실수에 대한 한없는 용서와 헤아림에 대해서 목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도 한다.

“기억하게 형제여, 높다 높으신분의 뜻에 따라 이 귀한 은식기로서 새 사람이 되게나. 하나님께서 자네를 어둠에서 구했으니, 자네 영혼을 그분께 맡기게나.”

미리엘 주교가 은접시를 훔친 장발장을 경찰로부터 구해준 후 은총대를 건네며 당부한 장면이다. 여기서 은총대는 장발장이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코드로 작용한다.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도피하는 상황을 맞았을 때 우선적으로 은총대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그만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심의 과정에서 은총대가 장발장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새사람이 되라’는 표지로 주어졌던 은총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행을 하며 살라’는 표징이라 할 수 있다. 온갖 파란을 겪으며 삶을 이어나가는 장발장이 눈물로 약속했던 ‘변화’의 신념을 지켜가게 하는, 늘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내 인생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사슬에 묶여 죽게 내버려 뒀어. 빵 한덩이 훔친 죄로. 하지만 주교의 말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사랑을 가르치는 건 어째서일까. 내게도 영혼이 있겠어. 그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장발장은 은총대를 내놓으며 관용을 베푼 미리엘 주교의 사랑에 혼란을 느끼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타락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한다. ‘예리한 칼처럼 수치심이 날 찌른다’는 말로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심정을 눈물로 토로하는 부분이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악회

본지가 주최하는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포함하는 이번 세미나 후원을 위해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았다.

퀸즈장로교회는 “교회설립 39주년 기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13년 2월 24일(주일) 오후 5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출연진

- Violin_이슬아
- Cello_윤지현
- Flute_윤소영
- Clarinet_송미선
- Soprano_강혜영, 최지혜
- Piano_김재희, 윤수영, 이세현
- 퀸즈장로교회 권사합창단
- 글로리아선교중창단

티켓문의: 718.886.4040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면

허리케인 샌디 후폭풍... 교회도 재난구제기금 받는다!



2면

교황 사임, 교황청 권력다툼 따른 과정?



3면

“예비 리더 키우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



7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7)

하와이 한인이민 기독교 110주년 기념

2013 한민족 복음화대회

조국 대한민국의 해외 이민의 첫 도래지요, 세계한인교회의 첫 열매요 시작이었던 하와이에서 한인이민기독교 110주년 기념 ‘한민족 복음화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미주 그리고 세계의 기독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세계복음화 열정을 모아, 세계한인교회 110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한민족의 기독교 신앙의 위상을 열방에 선포하는 이 역사적 대회에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후원

한인교회연합,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세계한인선교사회(KWME) 호놀룰루 총영사관, 하와이한인회, 하와이자주총연맹, 하와이기독교실업인회 세계한인기독교인론헤, 미주복음방송, 하와이 KBFD-TV, 하와이 Radio-Seoul, 하와이 Radio-Korea, 하와이 한국일보, 하와이 중앙일보, 하와이 서라벌, 하와이 서울가든, 하와이 퍼시픽여행사, 하나투어여행인

등록

미주 - 하와이퍼시픽여행사(담당-황지혜)
대표전화 808-941-5757 Fax, 808-941-6767
E-mail : hpthawaii@hotmail.com
*하와이 퍼시픽여행사는 대회숙소 및 항공편 예약을 담당해주는 대회 지정업체입니다.
서울사무소 - TOURMART (담당-이승혜)
대표전화 02-722-5355 Fax, 02-722-5359
서울 - 하나투어여행인(담당-임지혜)
대표전화 02-2295-2685 Fax, 02-6442-3482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총무-김천웅)
대표전화 808-348-1087 Fax, 808-842-0533
LA 연락처-하와이 이민110주년기념 한민족복음화대회 L.A. 지부
김모세 목사 전화 213-507-2399, 507-3875

일시 : 2013년 4월 10일(수)-14일(주)

장소 : Hawai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퍼시픽 비치 호텔,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주최 및 주관 : 하와이 한인기독교총연합회

강사 /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흥규 목사(인천내리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목사(서울축복의교회 담임목사)

한인 디아스포라 110년,
그 교회들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시론

권한 남용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이란 글을 접하게 되었다. 거기에 보니 입법에 관한 권한(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행정에 관한 권한(법령 집행권, 국군통솔, 비상계엄 선포, 공무원 임명과 파면 등), 사법에 관한 권한(준 사법적 권한, 특별사면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 대통령직의 명예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하였다.

얼마전 한국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나 사회전반에 걸쳐 여러 항변들이 있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면을 받는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온전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라 정의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건국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동안 대략 7-10회, 많게는 18회까지 사면권을 행사했고 그 숫자에 적게는 한 번에 몇 십 명에서 많게는 1,200만 명이나 되었다. 특별사면에 대한 이유를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나라의 경축, 국민 대통합을 위한 화해와 포용, 고령, 신체장애, 국가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사면을 단행했고 국민들도 특별한 반응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최근의 사면에 대해서는 원죄와 공정성이 사라졌고 권력남용이란 지적이 불물 터지듯 쏟아졌다. 특히 공정하지 못하게 자신의 최측근들을 사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들도 차제에 “남용”이란 단어를 음미해보았으면 한다.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니 남용이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 함부로 씀”이라 되어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다 자신과 타인,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성(sex)을 잘못 사용하면 성범죄를 저질러 사대방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며, 돈도 정당하게 벌고 바로 사용하면 삶에 유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돈이 내 인생을 좀먹고 사회와 국가를 부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책사용도 그렇다. 직책을 남용한 사례는 권력층, 지식층, 부유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목과 화합을 깨뜨려 사회 불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한 두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수고와 하루아침에 바벨탑처럼 무너져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사례는 단지 비 기독교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목회자나 장로, 안수집사 등 직분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직책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직분자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종”이란 단어는 본래 “노예”란 의미이다. 요즈음 종의 본래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가고 있다. 섬기라고 주신 그 고귀한 직책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바른 원칙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나 교회, 기독교단체를 이끌 때에도 그 직책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사사로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남용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전도의 문을 닫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사회전반에서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권한 남용”에 대한 사례들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만 말하지 말고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철저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내게 주어진 직책과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절제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본다.

허리케인 샌디 후폭풍... 교회도 재난구제기금 받는다!

미 하원, 연방정부재난구제기금 대상에 종교공동체 허용

하원이 지난 15일 종교단체에 정부의 재난구제기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54명, 반대 72명으로 과반수를 넘긴 이 법안은 상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크리스천 포스트지는 작년 뉴욕 일대를 포함한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

인 샌디의 후폭풍으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연방 재난 구제기금 대상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보도했다(House Passes Bill Allowing FEMA Disaster Aid for Churches).



을 이유 없이 약화시키는 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샌디의 피해가 컸던 뉴저지 오션스과 몬머스 관할 구역을 대표하고 있다. 스미스는 “오늘 논의와 투표는 불

공평하게 제외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것이다. 또한 식료품, 옷, 피난처와 위료가 필요한 수천 명의 희생자들을 돕고 있지만, 현재 연방재해본부의 지원을 받기에 부적합하

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근간인 교회와 다른 종교기관이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제기금에 접근이 거부돼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연방재해본부 정책은 분명히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심지어 종교에 적대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뉴욕시 퀸즈의 그레이스 멩(Grace Meng)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이 법안의 통과를 샌디의 피해를 입은 많은 종교 기관들을 위한 큰 승리”라면서 “우리는 현재 샌디의 피해를 견디도록 압박받아 온 교회, 회당, 모스크, 절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끝내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the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과 ‘미국시민자유 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법안이 제1차 수정헌법의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투표를 반대했다. 이 수정헌법은 ‘의회가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인연합의 바네사 울브링크(Vanessa Wolbrink)는 “이 자금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종교에 자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종교와 정부를 엮이게 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황 사임, 교황청 권력다툼 따른 과정?

내부권력투쟁, 사제들 성추문, 세속주의 맞설 개혁성향 교황후보 요구

패디파워 같은 도박회사부터 “은퇴일”인 2월 28일 며칠 전에 열리는 총선에 나서는 약삭빠른 이탈리아 정치인까지 전 세계에서 교황직을 사임하겠다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결정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이번 사건의 파장을 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베네딕토 16세가 거의 600년 만에 재임 중 자진 사임한 것은 바로 교황청 권력 다툼에 따른 과정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Pope Benedict XVI's leaked documents show fractured Vatican full of rivalries).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충격적인 발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언론은 열광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600여 년 전인 1415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립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임한 뒤로, 현재에서 선종하지 않은 교황은 없었다. 하지만 한 언론은 지난 월요일 발표에 훨씬 앞서 이를 감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0년 베네딕토 교황은 독일인 언론인 페테르 제발트와 거의 책 한권 분량이 되는 인터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이 관심을 보일 언급을 했다. 당시 교황은 “만일 어떤 교황이 더 이상 육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교황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자각한다면,

그는 사임할 권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사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인터뷰에서 베네딕토 교황은 “누구나 평화스러운 때에는 사임할 수 있거나 그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위협에서 도망쳐서는 안 되며,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황 임기 동안 교회는 수많은 스캔들로 요동쳐왔고, 가장 큰 스캔들은 미국과 유럽, 호주의 사제 아동성추행 문제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평화스러운 때”가 많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른바 바티리



크스가 불거졌다. 베네딕토 교황은 비밀문서를 빼내 언론에 알린 그의 전 집사인 파올로 가브리엘레에 대한 교황청 법원의 재판과 선고 과정을 존중했지만 자신은 이 이야기에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는 가브리엘레를 사면했고, 그의 18개월 징역형을 탕감해줬다. 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로마에 있는 교황청과 관련된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교황의 형인 게오르그 라칭거에 따르면, 베네딕토 교황은 당시 사임할 결심을 했다.

2006년부터 교황의 수행 비서로 일해 온 가브리엘레가 유출시킨 비밀문서에는 바티칸 일부 고위 성직자들의 부정과 돈 세탁 의혹이 담겨져 있었다. 따라서 교황청 내부에서는 일부 성직자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 정실 인사 등을 개혁하기 위해 교황에게 비밀 편지들을 보내는 개혁 성향의 성직자들까지도 언론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차 바티칸을 이끌 차기 교황은 내부 권력 투쟁과 돈 세탁 추문, 사제들의 성추문, 세속주의 창궐 등 굴적굴적한 개혁 과제를 피해야 할 수 없고 현재의 교황청 세력 구도로 볼 때 그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포)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포)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예비 리더 키우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

리더십저널, 존 맥스웰의 인재 경영의 법칙 소개

다국적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최연소 CEO가 돼 GE를 세계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잭 웰치. 그는 예비 리더를 키우는데 있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무려 30%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상위 1% 이내에 드는 탁월한 리더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리더 주위에 두는 것이다. 시스템은 옛 것이 되고 건물

은 허물어지며 기계는 노후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가치를 인정해주는 리더를 만날 때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유능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존 맥스웰의 “인재경영의 법칙”(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에서는 리더를 세우는 리더에 대한 중요성을 다양한 리더십의 원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비 리더들을 키워 그들이 언제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든지 중요한 책임을 감

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키워주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조 직을 위해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

주위에 있는 사람 키우기가 열쇠

가까운 사람이 리더의 성패 좌우

(multiplying)의 원리에 따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일하는 리더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하는 리더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위해 일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은 더하기의 수준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강점들은 곱하기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 맥스웰은 리더들에게 우선순위와 자기의 한계를 설정하는 정교한 기술을 가르쳤다. 그들

당하며 일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존 맥스웰은 수 십 년간 리더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 ‘리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리더의 성공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리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리더의 실패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리더십의 핵심은 가장 가까이 있

는지를 보는 안목인 것이다.

결론으로, 리더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멘티를 찾아서 멘토로서,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교회공동체 사역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역의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 리더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예비 리더와 같이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문하며 사역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구원과 용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대서사시!

〈1면에서 계속〉

세상에 대한 앙심만 가득했던 장발장은 이 사건 이후 “장발장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말로 결정적인 ‘회심’의 모습을 드러낸다. “어제는 혼자였는데 오늘은 네가 내 옆에 있구나...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나...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여정이 열리는구나.”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후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전환점을 드러내는 모놀로그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일자리를 잃고 비참한 창부의 삶을 살다 병을 얻어 죽어간 판틴의 딸 코제트를 돌봐주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 대사는 코제트를 데리고 파리로 이동하는 마차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람의 힘을 느끼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 미리엘 주교로부터 받았던 ‘자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가질 수 있었던 장발장이 어린 코제트에게 부모와 같은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는 이 모습은 사랑하며 사랑을 배우고, 신뢰를 받으며 삶의 믿음을 배우는 장발장의 여정을 보여준다.

“나 대신 잡힌 자 내겐 기회일지도 몰라. 진실을 말하면 그날로 난 끝이야...침묵을 지키면 난 저주 받겠지. 거짓말을 한 채 사람들을 어찌할까. 오래 전 주님을 만났지 절망 끝에서 주님은 희망을 주셨어. 난 누구인가.”

과거를 숨긴 채 시장의 자리에서 떡망과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장발장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번민하는 장면이다. ‘난 누구

인가’(Who am I?)라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를 떠올린다. 결국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범정에 신분을 드러낸다. 장발장에게 있어 또 하나의 극적인 전환이며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을 시사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떠나게. 자넨 자유야. 조건은 없어. 흥정할 생각도 없네. 자네를 원망하지 않아. 자네는 자네 임무를 다했을 뿐, 그뿐이니까.”

평생 자신을 뒤쫓아 왔던 자베르 경감을 처형하지 않고 풀어주며 장발장이 남긴 대사다. 장발장은 혁명군들에게 적으로 간주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자베르를 자신이 맡겠다고 한 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떠날 것’을 권한다. 그리고 허공에 총을 쏘며 달아날 것을 재촉한다. 여기서는 그간 자신을 끊임없이 추격하며 괴롭혀온 자베르 경감을 총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장발장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총에 맞서 총으로 응징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징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임을...어둠은 결국 끝나고 태양이 밝아오리니...그대가 영원하는 세상이 바리케이트 너머에 있네...내일은 오리라.”

자신이 헌신을 다해 양육한 양녀 코제트와 그의 남편 마리우스 곁에서 생을 마감하는 장발장을 미리엘 주교와 판틴

이 천상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장면의 대사다. 그리고 혁명을 위해 죽어갔던 젊은이들과 장발장, 판틴 등이 모두 함께 합창을 하는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구절이다. 이 부분의 ‘내일’은 레미제라블이 쓰여진 당시의 혁명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신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절망 그 너머의 진정한 부활의 모습으로도 간직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노와 저항을 화해와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대화함을 꿈꾸는 장면이다.

결국 ‘레미제라블’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느끼는 교훈과 깨달음, 감명은 여러 갈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원적인 핵심을 생각해보자! 용서의 정의에 대해 말하고자 할지이었을까? 한 사람의 개과천선으로 인한 카타르시스였을까? 아니면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었을까?

‘레미제라블’의 근본적인 주제 의식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한 가장 커다란 핵심이다.

‘레미제라블’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기독교영화다.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바로 일깨워주고자 함이 있다.

기자의 눈

고민해봅시다

지난해 연말 P목사가 본사를 방문했다. 두툼한 자료 봉지들을 내보이며 어렵게 대화를 이어가는 P목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알려진 S선교사에 관한 상황들을 상세히 들려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S선교사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선교사로 자녀들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S선교사는 일년에

두어 차례 단기선교 팀들과 아프리카를 방문해 1주일정도 치유집회를 한다며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돌아온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 전문사역자’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 소개돼 서부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체에서도 S선교사의 사역상황을 확인절차 없이 인터뷰하고 홍보해 그 파급 효과는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S선교사의 사역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P선교사의 진언이다. P선교사는 S선교사의 사역을 고발하는 차원에서만 본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좀 더 바른 판단으로 빠르게 헌신하는 이들을 찾아 도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램이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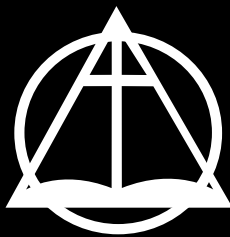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난 해 11월 멕시코에서 사역하다 미국을 방문한 선교사가 있다. 어린 시절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를 따라 이민자의 반열에 세워져 한때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혼돈기도 겪기도 했지만 결국 디아스포라로서의 사명을 인식하며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공항 이민국을 통과하면서 L선교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을 혼미했다고 그 때 상황을 회상하며 “모든 선교사들의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다 모

두가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상한 마음을 표하며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LAX 공항이민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이민국 직원 앞에 서게 됐다고 한다. 한인이라는 공통점만으로도 반가움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직업이 무어나고 묻고는 “선교사요? 돈 굶으러 오십니까? 돌아가며 부흥회하나요? 선교사를 미국에 돈 굶으러 오잖아요?”라고 빈정대듯 말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L선교사는 멕시코 사역 8년차로 그곳 현지인 리더를 양성

하며 헌신하고 있는 2세 선교사다. 그는 이민국 직원의 말을 들으며 심한 분노도 느꼈지만 “어떻게 했기에 선교사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에 더 진해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다.

선교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로 거듭나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지만 보내는 선교사들도 탐과 노력이 담긴 후원금을 전하며 기도를 쌓을 때 바른 영의 눈과 귀를 뜨고 신실한 선교사들에게 힘이 돼야 하지 않을까 잠시 고민해본다. 〈이성자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3)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7(Fri) ~ 20(Mon), 2013.
- 2) Place: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Amos 9:11-15
 - (2) NT Exegesis Text - Matthew 16:13-20
 -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Stem Cell Research and Application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① NT: Luke 9:23-27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all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heo1004@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HanksChoi_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August of 2013.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Samuel Heo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 s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ell : 201-981-0009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Chan w. Song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3) nquires in English : Rev. Hanks Choi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Rev.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김남수 목사

서기 : 이원호 목사

고시부 부장 : 송찬우 목사

고시부 서기 : 허상희 목사

✧ ✧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이웃되기

1964년 3월 13일 새벽 뉴욕시 퀸즈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캐서린 제노비스가 퇴근길에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35분간 이어진 범행을 38명의 이웃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지켜봤지만 아무도 도

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방관자 효과’ 혹은 ‘구경꾼 효과’란 말입니다. 며칠전 뒤늦게 유튜브를 통해 알려진 한 동영상은 미국은 물론

이를 본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뉴저지주 최대 도시 뉴어크의 코리부커 시장은 영국 웅변가 에드문드 버크의 명언을 인용하며 “악마의 승리에 필요한 건 선한사람들의 수수방관이다”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동영상은 스물한 살짜리 흑인 청년이 겁에 질려 서 있고 폭력배로 보이는 청년들이 옷을 벗으라고 하며 조롱하는 장면과 옆에 있던 폭력배는 “좀 씻겨야겠다”며 피해자에게 물세례까지 퍼붓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에 뉴어크시 길거리에서 일어났으며 청년의 아버지가 폭력배들에게 20달러를 빚졌기 때문이라고 마스크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주위에 많은 행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는 그곳에서 이사를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인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별고 없으셨는지요?”, “조반은 드셨는지요?” 등 위사람께 인사를 드립니다. 웃어른이 아랫사람을 만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웃집 손가락이 몇 개 인지를 알 정도로 가까운 것이이며 이웃간이었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수가 ‘멀리 있는 사촌도 이웃만은 못해요.....’라고 노래했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이웃을 친척처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멀리 있어 자주만나지 못하면 친척은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도 못하다는 뜻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 노

래가 유행한 지가 벌써 30년이나 흘렀으니 지금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일까요? 옆집에 누군가 새로 이사를 오면 잘 익은 시루떡을 만들어 이사를 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새해가 되면 동네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농촌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두레라는 좋은 유품이 있었습니 다. 부락, 이 단위의 모임은 ‘만두레’라고 하며 주로 농번기의 모내기에서 김매기를 마칠 때까지 시행되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또한 ‘품앗이’라는 좋은 풍습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품앗이’의 뜻을 살펴보면 ‘품’과 ‘앗이’가 합쳐진 단어로서 ‘품’이란(두 팔을 벌려 안은 상태 혹은 가슴 안에 들어온 상태)나 혹은 일을 한 대가를 말합니다. ‘앗이’란 내가 해준 대가로 앓아온다는 뜻으로 ‘품앗이’라 내가 남에

게 품을(일을 해준)것만큼 다시 “앓아온다”라는 뜻이고 보면 서로 일을 돌아가면 해주는 협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레나, 품앗이, 향약 등 이웃과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33살의 크리스토퍼 도너가 경찰관 및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한 오두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이 여러 무고한 생명을 죽일 함당한 이유는 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문의 선언문에 기록된 ‘핵심표적’ 중에 “난 골치 아픈데 연루되기 싫다”며 그의 도움을 외면한 아시아계 경찰관들을 향한 분노는 왠지 씁쓸함을 남깁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가 다정한 이웃되기 기대해봅니다.

푸 / 른 / 초 / 장

노 창 수 목사
(남가주사랑의 교회)



엄격한 의미에서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잠 22:7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런데 정반대의 말도 맞는 거 아십니까? 빚진 자만 편치 않은 것이 아니라 빚쟁이도 편치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한을 품고 살면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해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보복해야 할 일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팔복에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팔복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

두 번째는 값싼 동정하지 말고 최대한 공감해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곤궁에 처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사람의 피부에 들어간 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돕는 행위입니다.

긍휼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눅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지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

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롬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파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연민과 동정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때 갖는 시선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시선을 갖고 살면 남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은 우리 모두가 약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남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에 불과한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아파하고 함께 수고의 땀을 흘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남을 바라보면 용서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 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본다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품으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한 마음 마태복음 5:7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긍휼을 영혼의 질병, 연약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힘을 숭상했습니다. 정의 용기 힘을 가진 자를 높이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에 정반대되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대 보복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 18:21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랍비의 가르침은 세 번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곱 번이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번, 무진장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C. 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 용서하기 전까지 용서는 아름다운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화내지 마라 상처만큼 보복하라”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18장에서 일만달란트의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일달란트는 육전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임금은 일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일만달란트는 거의 평생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마태복음18장에서 일만달란트의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일달란트는 육전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임금은 일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일만달란트는 거의 평생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마태복음 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은 왕이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백데나리온 빚을 받을 권

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빚을 탕감 받은 종은 백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도덕적인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못하고, 엄청난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를 용서해주었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유들은 거의 타당합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가해자가 죄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주는 합당치 못한 부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적인 문제는 법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것 같이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요. 그런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스토리에 반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임에도 들어가서 돌봐주고 돈을 주며 끝까지 돌봐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통당한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셨습니다. 롬 9:15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조성근 목사 성회 일정

1 2013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3일	포일교회(김영주목사)
1일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특별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3일	평화의 동산 기도회(미중전목사)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일 ~ 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6일 ~ 8일	한영교회(차은일목사)	27일 ~ 30일	과천교회(주원신목사)
11일 ~ 13일	청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2

2일	햇불교회(임숙희목사)
2일	영원교회(리승철목사)
4일 ~ 7일	GST 30차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7일	화평교회(이재국목사)

3

3일 ~ 6일	창일교회(박여호수목사)
10일	순복음심마교회(이일성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신남교회(김봉현목사)
31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012 기도성회

7

1일	드림교회(장순직 목사)
3일	서울남노회(통합) 항주직제미나
9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3일	한반도 회복 기도회
19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 기도원(미국)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8

1일 ~ 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6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7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중전 목사)
13일 ~ 16일	GST 29차 신학생 여름훈련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 29일	수원천이교회(이영호 목사)

9

5일	순복음심마교회(이일성목사)
9일	한국중앙침례교회(한기동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6일 ~ 19일	임실교회(김교문목사)
20일 ~ 2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

1일 ~ 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8일 ~ 10일	동국대침례교회(김순복목사)
11일	한민대학교 해를
12일	한나교회(김방산목사)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0일	인천천이교회(이영호 목사)

11

1일 ~ 3일	만리천교회 (이형로목사)
4일 ~ 6일	전주성복교회 (이창남목사)
11일	수원은혜교회 (홍우석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5일 ~ 2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 (GST)
26일 ~ 28일	예일교회(김윤중목사)

12

2일 ~ 4일	해성교회(한영성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13일 ~ 22일	LA미주 갈멜산기도원 (GST 미국 미션 리서치)
24일 ~ 2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30일	신학생철야 송년의 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 예배

미주 갈멜산기도원 1주년 감사 기도성회

| 일시 : 2013년 2월 14일(목, 저녁) ~ 21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818) 306-4912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3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기도성회모습(예루살렘성전, 가나안성전 및 부속건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논쟁 많은 오바마 케어(Obama Care)의 장점과 단점 분석(III)

빛좋은 개살구 오바마케어

지난번에는 오바마케어를 시행하는 미국 정부 측의 자료들을 통해 오바마케어가 어떤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지를 나누어 보았다. 오늘은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왜 많은지, 오바마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오바마케어만큼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을 받고 있는 법안이 없다. 현재 200여건이 넘는 소송과 26개의 주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유의해두기 바란다.

오바마케어의 문제점들을 다는 못 다루지만 핵심문제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의료보험을 통제한다. ▲의료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 강제화 한다. ▲의료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보험이 무료가 아니기

소기업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 씀드렸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조에 따른 규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중 팬잡은 상황에 대한 예는 10명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인당 평균 하루임금이 13달러미만일 경우이며, 그때는 의료보험의 5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 고용주가 오바마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자 1명당 2000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으로 풀타임 종업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3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종업원은 보험혜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면 고용주는 대부분의 종업원을 30시간미만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돈에 비해 크지 않다.

몇 가지 법안 세부사항

(페이지 수는 2014년까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에 다른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

△페이지 22: 만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갖지 않고 자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고용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IRS를 통해 감사를 받게 한다.

△페이지 30과 40: 정부보험위원회에서 개인에게 어떤 치료와 어떤 혜택을 받을지 결정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항소 절차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페이지 58: 모든 사람에게 National HealthCare ID가 주어진다. 이 National의료보험ID카드에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를 넣을지는

낙태피임약, 낙태수술보조금을 국민세금에서 의무화 전국민 의무화 안하면 벌금 · 개인은행계좌 실시간 액세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을 사야만 가입이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져 보험을 못사는 사람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가장 큰 불평을 사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 자유를 빼앗아간 다(기독교 신앙에 대한 탄압의 시작!).

그렇다면 얼마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가?

개인에 대한 벌금: 건강보험이 없는 개인 1인당 2014년에는 95달러 또는 연수입의 1%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한다. 2015년에는 325달러, 2016년에는 698달러 또는 연수입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2017부터는 매년 1인당 세금 또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된다. 거기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아무리 적어도 어른들의 50%까지 내야 한다.

가족에 대한 벌금: 만일 가족당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의료보험을 사지 않을 경우 2014년에는 한 가정당 285달러 또는 수입의 1%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2015년에는 975달러를 물어야 하고, 2016년에는 가족당 2,085달러로 경증 올라간다. 2017년부터는 가정당 개인 수입의 3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참고로, 이 벌금들의 금액은 지금 최소의 벌금들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법안이 시행될 때는 더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혜택들이 오히려 불이익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추가 비용을 큰 식당 업자들은 음식 값에 비용을 포함시키고, 일반 도매점이나 소매점들은 물건 값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기혼자에게 불리할 수도: 맨해튼기관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다이애나 라스에 의하면 개인의 연소득이 4만3천 달러일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결혼해서 두 사람의 연소득이 총8만6천 달러가 된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지정연소득'이 무척 적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한다.

공공(public)보험이 아니라 민간(private) 보험: 지난번에 오바마케어의 유익한 점을 살펴봤을 때 Insurance Exchange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한 민간보험들을 만들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민간보험 중에서 저소득층은 여차피 가장 싼 가격의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으로 저 소득층이 받고 있는 메디케어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족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가족에 대한 혜택이 상실 이 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또, 의료보험도 상 중 하로 나뉘지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도 개인적 선택이 아닌, 정부에 의해서 차별이 된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를 정부에서 세금 보조해준다고 해도 보조금액은 국민이 내야 하는

아직 미정이다. 또한 연방정부가 모든 개인은 행계좌를 직접 실시간 액세스(access)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페이지 65: 납세자들은 모든 조합 퇴직자(union) 및 지역사회 조직건강보험을 보조해야 한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조합 퇴직자와 지역사회 조직보험을 보조한다는 뜻이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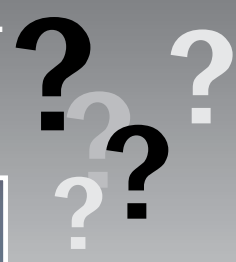
크리스천 변호사와 기독교 단체들의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오바마케어에서 (교회는 예외를 허락했지만) 아직도 기독교 기업이나 학교, 병원, 개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바마케어가 현재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법률, 벌금들을 적용시키겠다고 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교회도 현재는 예외가 됐다고 마음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케어는 자동적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하여금 태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낙태 실행과 낙태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곳까지도 보조하게 한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크게 위배되는 것이지요. 먼저 말씀드렸던 Hobby Lobby 같은 기독교 기업들, 수십 개의 기독교학교들, 병원들 등등 미국 기독교인들이 오바마케어에 많은 소송을 걸고 심각하게 반대하며 오바마케어를 "폐지" 시키려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낙태를 위한 아침피임약, 낙태수술 등등의 보조금을 국민세금에서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8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그 차이를 알고 싶고 진화론의 허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었는지요?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사람과 동물과 식물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 가지 견해와 학설이 있지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두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모델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람은 우연히 원자결합의 산물로 아메바를 거쳐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학설입니다. 초자연적인 모델은 창조론으로서 창조주의 의도적인 설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기독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람은 다른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영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이 우연에 의지하나 창조론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적인 설계에 의해 된 것을 말합니다. 진화론의 말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원숭이재판'이 공립교(진화론)교육 시발

라면 인간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그 특이한 형태를 따라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한 공통 조상에서 진화된 후손들로 봅니다. 수조원에서 시작하여 수십억년의 오랜 기간 동안 사람으로 서서히 진화되었다고 보며 현재도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또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이론 이것이야말로 바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가설입니다.

창조모델은 각 종의 발생기원은 독립적이며 변이는 그 종 내에서만 일어나지 중에서 종으로 바뀌는 대진화(Macroevolution)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개는 개지 개가 고양이로 호랑이로 진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진화론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창조)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증거의 확실성으로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너무나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인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공립학교에 어떻게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재만 교수가 쓴 '창조과학 콘서트'를 보면 1925년 미국에서 일명 '원숭이 재판'(Monkey Trial)이라고 불리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테네시 주 데이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공립학교 교사인 스코우프스가 수업 중에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 그를 고소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주 교육법상에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측은 스코우프스 교사의 주 교육법 위반보다 진화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재판 결과는 피고의 유죄로 1백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고소자 측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갖고 취재를 하였으며 영화관계자들은 이 재판을 영화화하였습니다. 성경을 고수하려는 기독교인들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진화론을 무모하게 공격하는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화론이 전 미국과 세계로 확산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달나라에 먼저 보내자 미국은 우주공학이 소련에 뒤떨어진 것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제대로 과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 해서 과학에 더 치중했고 결국은 진화론이 득세하여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DI852 World Religion(세계종교)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DI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48 Hour Program
-60 Hour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고론탈로(GORONTALESE)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여러 민족들의 문화가 존재하며, 3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인종 집단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 인구가 거의 백만에 가까운 고론탈로족은 술라웨시(Su-

종족집단 중 하나이다. 원래 산에서 살던 고론탈로 사람들은 현재는 술라웨시 북부 반도지역의 연안이나 평야지역에 여러 촌락을 형성하여 흩어져 살고 있기도 하며, 특별히 고론탈로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기도 한다.

술라웨시는 필리핀 남부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큰 개 모양을 한 이 섬은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주가 특징적이다. 열대우림 또한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작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역사가 바로 이 지역의 역사이다. 작

은 왕국들은 전쟁이 나면 더 크고 더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종종 서로 연합하곤 했다. 이 지역에는 원래 토라자(Toradja)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삶의 모습
고론탈로족이 사는 지역은 동쪽으로 미나도(Minado)섬의 미나하산(Minahasans) 지역에 인접해 있다. 미나하산은 네덜란드의 식민지화와 기독교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은 지역이며, 그 결과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론탈로족은 여전히 복음화되지 않고 독실한 무슬림으로 남아있다. 이들 두 집단 사이에는 많은 편견의 장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론탈로족 현지인 교회는 없으며 크리스천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론탈로족 무슬림에게 다가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쌀, 옥수수 그리고 사고야자열매는 고론탈로족에게 중요한 식품이다. 고구마와 기장은 제2의 곡물이며 코코넛은 상업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물과 밧 그리고 작살은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데 사용된다. 라탄(rattan, 야자수의 일종)과 다마르(damar, 목재용으로 키우는 나무)는 팔기 위해 모은다. 소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사용되며 말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에는 땅을 갖지 못한 8백만 명 이상의 농부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되지 않은 섬으로 이주하는 농부들에게 무상으로 땅과 집을 제공하고 다른 지원도 한다.

고론탈로족 사회는 부계사회이며 결혼은 무슬림 형식을 따르고 중매자에 의해 이뤄진다. 중매인은 신랑을 대신해 신부 값을 협상하며

신부의 값은 여자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 고종사촌 간의 결혼을 선호하기는 하나 이종사촌 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일단 결혼하면 부부는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자신들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를 떠난다. 부부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따로 소유하며 결혼 후 얻은 땅만 공동재산이 된다.

신앙
이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우세한 종교로 인도네시아 인구 중 85%가 이슬람교도다. 힌두교는 2%에 불과하며, 개신교는 약 8%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불교·도교적 가르침을 따르기도 한다. 정령 숭배(Animism)는 살아있지 않은 사물도 영을 갖고 있다는 믿음인데 외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믿고 있다. 비록 종교의식과 관습들에는 사실상 여러 종교가 혼합돼 나타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모든 고론탈로족은 사실상 수니파 무슬림들이라 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네시아어는 학교에서 가르치며 도시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론탈로족, 특별히 여성들은 오직 고론탈로어만 사용하는데 문자가 없다. 현재 고론탈로어로 기독교 오디오 자료뿐 아니라 성경번역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종교적 자유를 갖고 있긴 하지만 거대한 무슬림 집단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고론탈로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크리스천 박해’ 2012년 42% 급증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지난해 중국의 기독교인 박해 건수가 132건으로 전년(93건) 대비 41.9%(39건)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차이나에이드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교인 수는 2011년 4322명에서 지난해 4919명으로 13.8%(597명) 증가했다. 이 중 구금·억류된 교인 수도 1289명에서 1441명으로 11.8%(152명) 늘었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명에서 9명으로 125%(5명) 증가했다. 차이나에이드는 “중국 전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거나 정부 공인교회인 삼자교회에 편입시키는 식으로 가정교회의 확산을 막고 있다. 차이나에이드 대표 푸시주(傅希秋) 목사는 “강경한 반(反)기독교 정책을 고수해 온 후진타오 정권이 물러나고 개혁을 내세우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선교 여건이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험 도발은 북한 더욱 고립시킬 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2기 임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며 “어쨌든 우리가 본 것과 같은 (핵실험) 도발들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며 “어쨌든 우리가 본 것과 같은 (핵실험) 도발들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교회 3곳 화염병 피격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 섬의 교회 3곳이 최근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술라웨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가능성이 잠재된 대표적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01-2002년에는 술라웨시 포소 지역에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유혈 충돌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회들이 14일 오전 1-4시 한 교회에 화염병을 던졌으나 목격자들이 바로 불을 꺼 교회 문만 불타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도 같은 지역의 교회 2곳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으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5% 이상은 무슬림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슬람과 타 종교, 이슬람교의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단체 ‘외국인 7명 억류’

나이지리아의 이슬람단체인 ‘안세루’는 지난 16일 밤 납치된 외국인 7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P·AFP 통신에 따르면 안세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과 그리스, 이탈리아인을 1명씩 억류하고 있으며 레바논인 3명과 필리핀인 1명도 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나이지리아 북부 바우치주 자마레의 건설 현장 숙소에서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경비원 1명을 살해하고 외국인 7명을 납치했다.

이번 사건은 이슬람 급진 세력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벌인 최대 규모의 납치 사건이다. 안세루는 지난 해부터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경찰서 등을 공격해 세상에 이름을 알린 신진 이슬람 단체다. 안세루는 최근 수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테러 행위를 벌여온 ‘보코 하람’과 느슨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만으로 북 핵실험 못 막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8일 북한을 거론하며 제재만으로는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AP통신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국제 유대인 지도자 모임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제재만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 정부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이 동반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란을 저지할 기회는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이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란도 핵 프로그램 개발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자국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서방의 이란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란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이들 공격성, TV로 줄인다

시애틀에 사는 작가 낸시 젠슨의 딸은 3살밖에 안 됐지만 성인용 코미디 애니메이션 ‘킹 오브 더 힐’을 좋아했다. 그러다 젠슨은 아동 실험에 참가하게 돼 딸에게 협동적 팀플레이와 우정 등 주제를 다룬 유아

용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제 6살이 된 딸은 선생님으로부터 남을 배려한다는 칭찬을 받는다. 젠슨은 딸이 전에 좋아했던 TV 성인 프로그램이 “정말 웃겼지만 들어보니까 3살짜리에게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학 연령 이전의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행위를 묘사한 TV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공감을 유도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했더니 공격성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가 18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애틀 아동연구소와 워싱턴대의 연구자들은 3-5세의 아이가 있는 565쌍의 부모를 두 무리로 나눠 실험했다. 실험군 부모들은 다른 이를 도우며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고 공감을 보여주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아이에게 보여주도록 권유받았다. 또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물어보라는 조언도 받았다.

6개월이 지나 실험군 부모들은 대조군보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드러내는 공격성이 줄었으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아졌다고 답했다. 저널 ‘소아과학’에 실린 이번 연구 논문의 주저자 디미트리 크리스타키스 워싱턴대(소아과학) 교수는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TV를 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채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토머스 로빈슨 스탠퍼드대 소아과학과 교수는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험”이라면서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덜 보고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더 보여주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비슷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제이미 오스트롬 버팔로대(심리학) 교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갈등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추천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끼리 싸우면서 고통을 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이어 아이가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게 하라고 권했다. 3살짜리 아이가 4살 이상 아동의 시청을 권장한 PBS의 ‘아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형제간의 다툼만 기억하고 나중에 화해하는 부분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현 금

새빛교회

현 금

뉴욕초원교회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㉓

① 하술(홀레 계곡 남쪽)

하술은 가나안 땅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이다. 특히 하술은 고대 가나안 원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성읍으로서 종교적·정치적·군사적 면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술은 므깃도에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연결되고 중동지역의 초승달 지역을 통해 바벨론까지도 연결되는 도로 상에 있으며, 두로에서 벳산으로 연결돼 요단 동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하술은 갈릴리 호수 북쪽 약 16km 지점, 홀레호수 남서쪽 약 8km 지점, 상부 요단강 서쪽 약 5km 지점에 있다.

여호수아서(11:10-11)에 의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수도였던 이곳은 당시에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기에 가나안의 머리라고 불렸다. 여호수아에 의해 영도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남부와 중부를 정복하고 고자 할 때, 하술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북쪽 진격 소식을 듣고 이웃의 왕들과 연합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요단강 지역 세력으로부터 지중해에 맞닿는 지역의 세력까지 모든 세력을 모아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아보고자 메론 호숫가에 집결했다(수11:4).

메론 호수가 전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판 승부처로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장 큰 위기상황이었다.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다(수11:6). 이스라엘은 숫자상으로 절대 불리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맞아 마침내 승리를 얻어냈다(수11:7-11).

그 후 하술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으며(수19:36), 사사시대에 가나안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 되찾아졌다(삿4:1-24).

왕국시대 솔로몬은 이곳에 성

을 쌓고 병거대를 배치했고(왕상9:15) 이곳에서 솔로몬의 마병대가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출동해 근처에 있는 가나안을 제압하고 북방적들의 침입에 대비했다. 그러나 후에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병거성은 파괴되고 이곳 주민은 포로로 끌려갔다(왕하15:29). 바벨론 포로귀환 후 베냐민 자손 중 일부가 거주하기도 했다. 하술은 고대시대부터 중요한 무역로에 있었으며 군대이동경로이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군대와 강력한 이집트 군대의 충돌장소이기도 하다.

하술은 이스라엘 고고학자 야딘에 의해 구체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도시 역사가 상세히 밝혀졌다. 해발 225-230m에 있는 하술은 야빈이 통치할 때 주민이 2만 명에 이르렀고 전체 크기는 80헥타르나 된다. 하술 유적지에서 최근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발굴됐으며 이 성은 솔로몬의 병거성을 거쳐 아합의 도시가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② 가이사랴 빌립보(홀레 계곡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바다 동북쪽에서부터 약 40Km쯤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데가볼리 지방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 중 하나로, 다메섹 남서쪽 약 80Km되는

곳에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되는 헤르몬 산기슭에 자리 잡은 운치 있고 아름다운 고대 도시이기도 하다. 헤르몬 산의 높이가 2700미터이니 가이사랴 빌립보는 상당히 높은 산악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헤르몬 산은 일년 사계절 언제나 흰 눈이 덮여 아름다움과 장엄



함을 자랑하는 동시에 항상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이 돼왔다. 특히 여호수아 장군의 인솔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을 정복했을 때도 역시 북쪽 경계선이었다(수11:3, 17, 12:1).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헤르몬 산 이남을 모두 점령해 지파별로 분할했다.

바니아스(Banias)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헤르몬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맑고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어 비옥

한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바니아스는 '팬(Pan)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행운의 신을 섬겼던 많은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희랍 통치하에서 동굴 속에 팬(Pan)신의 신당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로부터 헤롯이 물려받은 성읍으로 헤롯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곳에 궁궐을 지었으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경배하기 위해 대리석 신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헤롯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빌립이 통치권을 인수 받았으며 가이사랴 빌립

보의 지배자가 됐다. 당시 바니아스는 그 지역의 수도가 돼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한층 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시켰으며 이름도 부르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꾸었다.

성경에 기록된 주변 성읍들로는 바알 갓(수11:17, 12:7, 13:5)과 바알 헤르몬(삿3:3, 대상5:23)이 있다. 예수께서 이곳을 방문하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마16:13-20, 막8:27-30).

7세기경 아랍인의 침공 전까지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곳으로 기록돼있다.

③단(홀레 계곡 북부)

본래의 이름이 라이스(삿18:7), 또는 레센(수19:47)이었던 단은 단 지파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파의 이름을 단이라 개명하게 됐다(삿18장).

이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자기 지역내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벳엘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경배하도록 유도했다(왕상12:28-9). 하지만 유다 왕 아사의 요청으로 아람 왕 벤하닷에 의해 파괴당한다(왕상15:20). 이후 단을 재건한 왕은 북왕조 오므리 왕과 아합 왕 통치 때였으며 BC732년 앗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 파괴되고 폐허로 남게 된다.

요단강은 헤르몬 산기슭에서 발원하는 세 개의 강들이 모여 이어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이다. 그 강의 길이는 갈릴리까지 약 90Km가 되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는 약 320Km가 된다. 즉 요단강의 전체 길이는 약 400Km가 넘는 긴 상시천인데 단은 요단강의 세 근원(나할 헬몬/나할 바니아스, 나할 단, 나할 스닐/나할 하즈바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호에 계속〉

가정사역 칼럼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려고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나쁘다면 그것을 전해줄 수가 없다. 자녀와의 관계개선이 급선무다. 이번엔 방법들 중에 티타임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분주한 일상에서 자녀와 시간을 정하고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할애된 시간이다. 이를 위해 자녀와 함께 하는 데이트 시간, 혹은 티타임을 가질 것을 권해 본다.

먼저 자녀와 데이트를 하거나 티타임을 가지려면 부모와 자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주 중에 가장

적합한 요일에 일정시간(1시간 정도)을 정하여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데이트나 티타임 시간이 정해지면 두 번 째로 할 일이 데이트 장소나 예쁜 찻잔을 준비하는 일이다. 자녀와의 일대일 데이트나 티타임은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다. 부모와 어린이들은 일대일 데이트나 티타임을 통해 함께 즐거운 놀이(영화나 연구구경)나 게임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자신의 얘기를 하는 동안, 어린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 곧 자존감이 높아지기 마련

이다.

부모입장에서 쉽진 않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기 원한다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상적으로 한 주에 한 번 정도, 바쁜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자녀와 일대일 데이트를 하거나 하다못해 티타임이라도 가져보길 권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어머니 아빠가 자기와 함께 갖기로 한 시간 약속에 기대를 품게 되고 자신의 예쁜 찻잔을 가진 것만으로도 티타임을 기다리게 된다. 과연 그런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용할 것인가? 데이트나 티

타임의 시작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의 두 가지 규칙만은 지키도록 한다.

■ 부모님이 지켜야할 데이트/티타임 규칙 1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주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 어머니 아빠와 데이트를 할 텐데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아이와 상의하도록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라. 때론 함께 영화나 연극 음악회에 가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노력하라.

자녀와 함께 데이트를 하러가거나 차를 앞에 놓고 앉으면 부모님은 말을 아끼도록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이 먼저 자신의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이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한 시간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이야기를 주도하거나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 아이가 말 한 마디 없이 끝나게 된다면 "아쉽지만 오늘

약속된 시간이 끝났네"라는 얘기와 함께 데이트와 티타임을 정리하라.

■ 부모님이 지켜야할 데이트/티타임 규칙 2

데이트하는 동안 아이들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의 결정을 따라주며 좋은 결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아이들의 얘기에 대해 절대 토를 달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고 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인가 지시하려 하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은 데이트 시간이나 티타임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 지식이나 해법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하라. 특히 힘든 감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해주라. 예로, "마음이 참 힘들었겠네." 혹은 "많이 슬펐겠다." "참 아팠지?" 등

의 반영적 경청법을 사용해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게 될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친밀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바람, 소원,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노력해보라. 예를 든다면 "엄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해요?"라고 묻는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구나!"라고 말하며 맞장구를 쳐주면 된다. 또 "친구 아무개가 나와 놀기 싫다고 해요"라고 하면 "너는 친구 아무개와 가깝게 지내고 싶구나" 또는 "너는 그 친구가 너와 놀기 싫다고 해서 섭섭하구나"라고 마음을 읽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데이트 시간이나 티타임을 기다리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지려는 노력을 보인다. 부모들도 자녀와의 대화를 즐기며 자녀와의 데이트나 티타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자들의 개혁의 불꽃이 희미해질 무렵, 혜성같이 나타나 삶의 전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목회로 시작하여 자유대학을 세우고 기독교신문을 창간하는 등 점점 넓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정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가 들었던 개혁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발걸음들을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카이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쿨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태처럼 엮어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쿨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쿨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이.야.기

본 저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를 훑어내려간다. 스프링스의 비밀같이 작은 궁금중부터, 에덴동산의 위치와 모습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역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속에 속속들이 숨겨진 성경의 역사적 진실과 증거들을 내보이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26. 빙하의 기원

요즘은 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지구온난화 문제다. 또 그 온난화와 자주 결부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빙하의 문제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빙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간에 창조하신 물건일까, 아니면 그 빙하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1. 빙하란?

먼저 빙하(氷河, Glacier)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빙하가 바닷물에 떠내려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빙하는 전부 다 눈이 변해서 된 얼음이다. 현재 빙하의 대부분은 남극과 북극 지역에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이 약 65미터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이것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이다. 실제로 이렇게 될 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바다에 떠있는 빙하가 녹을 때는 해수면이 상승되지 않는다. 또, 땅 위의 빙하가 녹게 되면 그만큼 육지가 융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빙하의 양이 엄청난 것만은 분명한데 과거 언제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양의 빙하가 존재했던 때가 있었다. 지구 육지의 약 3분의 1이 700-1200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였던 시기인데 과학자들은 이때를 빙하시대라고 부른다.

2. 세속 학자들: 빙하시대가 어떻게 가능해?

빙하시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Daniel Pendick이란 학자는 "실제로 일어나지만 않았다면 빙하기는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린다"라고 했다(The dust ages, Earth 5(3):22, 1996.). 빙하시대는 현대과학자들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빙하시대가 어떻게 왔을지 설명하는데 무슨 어려운 문제

가 있기에 이런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

빙하시대에는 지구 전체가 쾅쾅 얼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무척 많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빙하는 바닷물이 얼음이 된 것이 아니라 눈이 쌓여 얼음이 된 것이므로 빙하시대는 당연히 땅

기는 하지만 아직 그럴듯한 이론 하나 없는 것이다.

3. 빙하시대는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 가능하다!

지나간 빙하시대에는 지표 3분의 1의 넓이에 700미터 이상의 눈을 내려야 했으므로 약 120미터 깊이의 바닷물이 증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빙하시대 전문가들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따뜻한 바다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 바닷물의 평균온도는 4°C이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는 증발이 너무 적어 빙하시대가 올 가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바닷물이 따뜻해졌던 때가 있었을까?

따뜻한 바닷물은 노아홍수로만 설명할 수 있다. 노아홍수 후기에 지판(plate)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물은 그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갈라진 지판 사이로는 용암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바닥은 모두 다 노아홍수 당시 분출된 용암이 굳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땅

산이 없는 시베리아 지역에는 빙하가 없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노아홍수 직후 바닷물이 따뜻한 시기에 화산이 폭발하여 빙하시대가 도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아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노아홍수 직후 사람들 수명은 450세나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명이 다시 250세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음에 틀림없다. 성경은 홍수 후 약 100년이 된 이 무렵에 "세상이 나뉘었다"(창10:25)고 했으며 바벨탑 사건(창11장)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부패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반역한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어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화산을 터뜨려 엄청난 증발되는 수증기를 눈으로 바꾸어 육지에 쌓아 빙하시대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때 해수면은 120미터나 낮아져 대륙들이 하나로 연결되었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자유롭게 지구 곳곳으로 흩어질 수 있게

빙하시대, 성경역사 아닌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빙하는 눈이 변해 된 얼음, 바벨탑사건 결과들 중 하나



은 눈이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지구 전체가 쾅쾅 얼어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릴 수 없다. 눈이 내리려면 대기에 수증기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바닷물 증발량이 줄어들어 대기에 수증기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지구가 더워도 눈이 안 내릴 것이고 추워도 빙하시대를 만들만한 충분한 눈은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빙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닷물 증발은 많아야 하고 대기온도는 눈을 내릴 만큼 추워야 한다. 어떻게 이런 서로 상반되는 조건을, 그것도 지구 남반구와 북반구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를 과학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빙하시대는 공상과학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빙하시대 이론이 여러 개 있

는 시 바닷물의 온도가 현재에 비해 엄청나게 높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따뜻해진 바닷물의 영향으로 노아홍수 직후에는 북극이나 남극이나 지구 어디나 온난다습한 기후가 되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사람들이

과 매머드들이 살았으며 사하리에도 사람들과 대형동물들이 남겨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어떤 창조과학자는 노아홍수 직후 바닷물 온도가 30 °C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빙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증발되는 수증기가 얼어서 눈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바닷물이 그렇게 따뜻하면 그 영향으로 눈이 내릴 수 없고 비만 오게 될 것이다. 눈이 오게 할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와 연무질이 태양 빛을 가리는 경우다. 지표의 에너지는 거의 다 태양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화산이 터져 햇빛을 가리면 눈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빙하가 있는 북미주에는 20세기 최대 화산이었던 St. Helen 화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화산들이 여럿 발견되었다. 반대로 화

도였으며, 해빙이 되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빙하는 바벨탑 사건의 결과들 중에 하나인 것이다(더 상세한 내용은 이재만, 최우성 공저, 빙하시대 이야기, 두란노, 2011, 참고)

4. 성경역사를 부정하는 진화론

완전한 창조를 부정하든지, 타락을 부정하든지, 노아홍수와 바벨탑 사건의 심판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성경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판단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사람)이 되고 만다. 성경역사를 부정하는 진화론은 그런 범죄를 조장하는 사탄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진화론과 진화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창조이론들이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창조론, 다중격변론, 날-시대이론, 간격이론, 구조가설 같은 창조이론들이며 창세기 1-11장을 은유나 시나 설화라고 주장하는 빗나간 이론들이다. 그러나 빙하시대의 존재도 성경역사가 역면 그대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10:5).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최고의 사랑 표현이자 신뢰의 표현 ‘순종’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 필립이라는 어린 소년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필립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립! 아빠가 시키는 대로 배를 땅바닥에 대고 앉으려라.” 필립은 아버지의 지시에 즉시 순종하며 따랐지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필립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립! 아빠 쪽으로 빨리 기어오너라. 최대한 속력을 내서 말이야.” 필립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손과 발을 최대한으로 움직여 아버지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는 곳에 거의 다다르자 아버지는 또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아! 필립, 이제 일어서서 빨리 뛰어오너라” 필립은 아버지의 말에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며 아버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필립과 만난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필립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필립, 뒤를 돌아 나무를 한 번 쳐다 보거라.” 필립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뒤를 돌아 본 순간 필립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기대고 있던 나무 위에 큰 독사가 허를 날름거리며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립은 너무나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아버지 또한 놀란 아들을 꼭 안아주시며 말했습니다. “필립, 네가 아버지의 지시에 잘 따랐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 줘서 고맙다.”

순종이란 필립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성품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각적으로 기쁘고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성품입니다. 부모님이나 교사, 영적 지도자 등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은 아주 일찍부터 시작해야 할 중요한 훈육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할 줄 알게 되면 더 나아가 사회질서와 법규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순종할 줄 아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합니다. 순종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자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면에서 계속>
결론

오바마케어에 좋은 점들도 물론 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린 법안이 됐다. 우선은 연방정부의 통치로 인한 오바마케어 시스템은 미국에서 현재까지 민주주의정신을 가지고 존중해주던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신앙 자유를 무참히 빼앗아 간다. 오바마케어에서 펼치고자 하는 메디케

어 연장혜택이나 세금혜택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혜택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생기는 세부사항들로 가득 차 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바마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 기업들이 지금 수백억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개개인들은 오바마케어의 의무화된 정책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정부의 법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메일: tvnext.org@gmail.com

Seeking **EM Pastor**

Southern Korean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Charlotte, North Carolina is seeking a full-time English Ministry Pastor.

1. Qualifications

- Is a member of KAPC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es) or can become a member
- Graduated from both an accredited evangelical seminary and a 4 year college in the US
- Resides in the US legally

2. Requirements

- Resume including a photo and introduction of family
- Ministry vision statement
- Sermon on CD or MP3 format

Apply by: **March 31, 2013**

Mail application to:
EM Pastor Search Committee
3619 McKee Road, Charlotte, NC 28270
Or email to: sunsong1960@gmail.com
Church Website: www.thekoreanchurch.org

Southern Korean Presbyterian Church

유초등부(K-5th Grade)

교육전도사 청빙

Required Qualifications

- 정규 신학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Be currently enrolled in seminary or have completed it
- 최소한 1년 이상의 어린이 사역 경험이 있는 분
At least 1year of children ministry experience
- 영어설교 하시는 분
Fluent English speaking

Application Requirements

- 이력서 (Resume)
-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보내실 곳: lakwpc0316@gmail.com (3월 30일 마감)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같이 편한교회 군대같이 강한교회
나성서부교회
Korean Western Presbyterian Church of L.A
www.lakwpc.org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복음의
전파를
돕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북한 인권위해 ‘10만명 서명’ 동참”

남가주 한인단체들, UN 조사 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제사회의 북한 핵규제에 이어 북한 인권상황 조사가 유엔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위반 상황을 조사하는데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들도 유엔의 북한 인권상황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기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조사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북한 인권상황 조사는 지난 달 나미 팔레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국제적 조사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안팎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 달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미 있는 결의가 도출될지가 관심사다.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기구(International Inquiry)를 통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방안을 밝히고 있다. 놀런드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도 이 제안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LA 지역 한인단체들이 유엔에 북한 인권상황 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파바월드와 LA 지역 한인단체장협의회, 남가주 기독교협의회, 가주한미포럼 등 한인단체들은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10만 명 서명을 받기 위한 운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유엔이 독립적인 국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도록 미국 행정부가 촉구하라’는 청원을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접수하기도 했다.

백악관이 10만 명 이상 서명한 청원에만 공식 반응하기 때문에 한인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엔에 북한 인권상황 조사를 촉구하려면 서명운동이 요건하다고 보고 공동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폴란드 국회에서도 “북한 탈북자들과 인권들에 대한 국제의회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IPCNKR)을 결성해 국제사회가 UN 국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종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통이자자 한파로 알려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주도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척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네트워크를 통한 동 위원회 설치를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지난 2월 7일 백악관 청원사

이트에 접수된 “북한 인권청원(The Obama Administration should support UN’s Commission of Inquiry (COI) into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특히 UN 인권위원회가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최되기에, 동 기간 내에 100,000개의 청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국제조사위’가 신설돼 더 이상의 인권유린이나 말살을 막고, 철저한 통제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을 국제무대에서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이번 청원의 핵심이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법: 1. wh.gov/pg9X(G와 X를 반드시 대문자로 해야 한다)에 들어간다. 2. 어카운트가 있으면 sign in을 하고 없으면 create an account를 클릭한다. 3. 본인 이름과 이메일주소 거주지 우편번호(Zip코드)를 넣는다. 4. 입력한 이메일주소로 어카운트가 만들어졌다는 확인이메일이 도착하면 이를 열어 이메일 안에 나와 있는 링크된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해당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다시 접속한 뒤 sign in 즉, 서명한다. 5. 서명 후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클릭해 서명운동을 SNS를 통해 알린다.



목회서신

아버지의 권위(父權) 회복

요즘 한인사회에서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원인을 전통적인 가부장적 대가 속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가정의 구조가 급변되었고,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로 남녀평등, 여성상위를 넘어 여성해방시대의 도래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맞벌이 부부증가, 남편의 근로조건 악화로 가사협력의 기회가 증가되고, 전업주부화가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한 가정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이 크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과 노인문제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문제의 더 중요한 근본적 원인과 배경은 가정질서의 파괴와 권위의 상실에 있다고 본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으므로, 가정문제의 발생은 필연적 수발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남편)의 문제라고 본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회복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아버지의 권위, 부권회복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 부권(父權)의 회복 방안은 무엇일까?

1.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자각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동안 참다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배움이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가정문제의 근원해결책은 아버지의 권위, 즉 부권회복에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정의 대표자, 가정의 영적 제사장, 자녀의 영적스승으로서 아버지의 남성상,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랑 등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이 필요하다.

2. 아버지의 헌신

교육은 모방이라고 한다. 자녀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건강한 삶과 출생수면,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이며 위임자이고 대리자이다. 아버지의 온전한 헌신의 삶을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3. 아버지의 대화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제대로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된 시간은 하루에 38초이며 기타 형식적이고 사소한 시간까지 합한다면 고작 하루에 20분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녕 ‘아버지 부재의 사회(Fatherless Society)’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빠, 바빠, 나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부부와 자녀들 간의 대화가 가정의 문제해결의 첫걸음을 알아야 한다.

4. 가정 구성원간의 공동의 노력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자각, 헌신, 대화도 필요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가정 구성원간의 공동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하려면 먼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엡5:22,24,33), 경의하며(엡5:33),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 희생적으로 사랑하고(엡5:25,28,33),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엡6:1), 공경하고(엡6:2),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므로(엡6:3)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 가정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의 권위도 회복될 수 있다.

LA연합교회 설립예배



LA연합교회 설립예배에서 정홍권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LA연합교회(공동담임 정홍권 목사, 김동술 목사) 설립예배가 17일 오후 1시30분 에덴교회(담임 표세홍 목사)에서 개회했다. 김동술 목사의 예배 인도로 시작한 이날 설립예배는 표세홍 목사가 기도, 이규만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정홍권 목사가 ‘교회의 의의’(행2:42-4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홍권 목사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 말하며 “교회는 거룩과 사랑이 있어야 하며 이중 하나가 빠지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티판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세백기도회: 오전 6:30(토) Tel.(718)359-7883, 직통 (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ry@yahoo.com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티판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세백기도회: 오전 6:30(토) Tel.(718)359-7883, 직통 (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ry@yahoo.com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9: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5:5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718)464-2295, (718)588-8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월-토) 세백기도회: 오전 11:00 Tel.(516)893-1977, Fax.(516)89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718)461-2810(Fax 전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2010 Horace Harding Expw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ell.(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oongbo.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이문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 BMS&E: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주 주, 주)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통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NCF영양: 오후 1:30 Tel.(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h.com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mk@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밴앨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4)61-1235, Fax.(41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림절예배: 오후 1:30 초등부예배: 오전 9:00(월-토) 유년, 유년노년: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410)337-9448, 882-0181, Fax.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 전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에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전예배: 오후 4: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e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0037 706 Wil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세백기도회: 오전 6:00(토) Tel.(253)565-108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영/월) 주일4부예배: 오후 2:00(월/영) 세백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ickhi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병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파자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일/세)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www.lkpc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l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Te.(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ickhi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미전도종족 선교대회

미전도종족 선교대회가 3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이틀간 뉴저지 클리프턴에 있는 사람의글로벌비전교회에서 열린다. 대회강사는 Paul Eshleman(CCC 부총재), 김해택 목사(GKYM 공동대표), 박원철 선교사(GAP 사무총장), 정기봉 목사(GKYM 공동대표), 안강희 선교사(GAP 국제대표), 송성섭 목사(남부한인교회 담임)이며 웹사이트(www.gvcus.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타주 참석자는 미리 등록하면 숙박이 준비된다.

▲문의: (973)778-9191(교회), (215)316-0960(황윤영)

뉴욕평신도선교신학원 신입생 모집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운영하는 뉴욕평신도선교신학원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평신도로 선교사명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받고자 하거나 장차 평신도선교사로서 선교지역에 파송받기 원하는 자. 이력서, 신앙고백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한 개별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1년 2학기제로 2년 과정이며 총 40학점 취득후 졸업한다. 수업료는 학기당 100달러. 개강은 3월 5일이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한다.

▲문의: (718)762-2525

필그림 주일학교 교사세미나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주최하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필그림교회 나사렛 채플에서 열린다. “더 좋은 교사가 되는 길”(딤후4:11-16)이라는 주제로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전에 주 강의, 오후에는 선택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의: (201)843-2222

SEED 선교학교 개강

선교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교의 핵심을 깨닫는 SEED 선교학교 Unit 3, 4강이 2월 21일(목)부터 12주 과정으로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진행된다. SEED 선교학교는 교회 교역자, 선교위원회 위원, 단기선교 참가자 등 선교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며 자세한 정보는 http://www.nyjbc.org/jb/8347#0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718)279-2757(김정배 집사)

뉴욕리폼드신학교 2013년 봄학기 개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교(NYRBS, 학장 유상열 박사) 2013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 본교에서 열렸다.

유상열 학장은 “하나님의 복음”(롬1: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첫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둘째는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해주신 것으로 복음의 핵심은 ‘그의 아들’에 대한 것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복음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



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에 쓰임받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YRBS의 봄학기 일정은 2월 25일(월)부터 수업을 시작해 5월 28일(토)에 마치며 종강예배는 6월 2일(주)에 있게 된다. 또 이번 학기에는 조직신학, 선교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이 강의되며 이외에 2개의 특강이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rbsny.org를 참조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동부소식

뉴저지교협 호산나전도대회 강사에 유관재 목사

제4차 월례회, 6월 17-19일, 분과별 사역일정 발표

제4차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 월례회가 지난 6일 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



유관재 목사

에서 개최돼 호산나대회 일정과 각 분과 별 사역현황을 발표했다.

교협은 이날 ‘2013년 호산나전도대회’ 일정을 발표하고 강사로 유관재 목사(일산성광침례교회 담임)를 초청한다고 밝혔다. 유관재牧사는 침례교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침미준) 회장으로 CTS 기독교방송 밀레니엄 특강과 ‘유관재목사와 함께하는 테마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일시는 6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장소는 팰크 린버그 초등학교다. 또 18일(화) 오전에는 ‘사모세

미나’를, 19일 오후에는 ‘목회자세미나’가 있게 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호산나전도대회’ 참석자들을 위해 ‘호산나어린이 전도대회’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개최한다.

한편 그동안 준비해온 ‘뉴저지한인교회 주소록’은 3월 31일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또 지난 신년하례식 때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목사신분증 발급도 계속하고 있다.

다음은 각 분과별 발표내용.

▲선교분과(박인갑 목사): 3월 1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선교컨퍼런스’가 자체 내 3월 행사(설교클리닉/부활절 새벽연합 예배)의 뒤편한 일정으로 인해 4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로 연기됐다. 원래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타주 참가자들을 위해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미원주민 선교훈련은 이전까지 뉴욕교협과 연계해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 뉴저지 지역이 자체적으



뉴욕전도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 회장 지인식 목사

뉴욕전도협의회 새 회장에 지인식 목사

제9회 정기총회, 부회장 허윤준 목사 선임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황영진 목사)가 지난 19일 제 9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지인식牧사를 선출했다.

황영진 목사 사회로 시작된 회의에서 황 목사는 “가장 힘들고 바쁜 때에 회장을 맡았는데 끝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지난해 행사에 협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했다.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는 지인식 목사가 매달 월례회와 뉴욕영적각성 연합기도성회(5월 11-12일), 뉴욕영적각성 복음화대회(9월21-23일)에 대해 보고했다. 또 회계보고는 2개 성회 경비로 2,220달러, 4,345달러를 각각 보고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부회장 박성원 목사가 나눔의집 디렉터 사역을 하기 위해 회장승계를 사임함에 따라 지인식牧사를 회장으로, 부회장은 허윤준 목사로 선임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지인식 목사(총무) 인도로 기도 박마

이를 목사, 설교 박성원 목사(부회장), 축도 김수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성원 목사는 “보다 나은 것”(전 7: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자들은 누구나 더 좋은 목회를 지향한다”며,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는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에게 더 좋은 이름을 주시고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런 새로운 이름이 중요하다. 전도협의회라는 이름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이름이다.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김영환 목사의 인도로 동성 합심기도로 마쳤다.

한편 김수태 목사는 3월 10일 교회연합계간선교대회, 7월초 뉴욕교협 주도 니카라과 선교, 5월 27-28일 뉴저지 두날레 회복집회 등에 대해서 광고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터 오후 5시까지 ‘스토리텔링’ 설교에 관해 강의되며 장소는 추후 공지한다.

▲음악분과(강영안 장로): 목회자와 실버선교사를 위한 ‘소망음악회’가 7월 28일(주) 오후 6시 팰팩에 위치한 ‘린버그 초등학교’에서 열린다. 각 교회 성가대와 뉴저지장로성가단, 뉴저지권사합창단, 어린이 찬양제 입상자, 엘리트밴드와 독창, 연주, 중창 등이 있게 된다.

▲체육분과(방갑순 장로): ‘교협기금관리 골프대회’가 4월 29일(월) 오후 12시부터 뉴욕 햄스테드에 위치한 뉴욕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여성분과(정정숙 원장): 2월 4일부터 목회자 부부행복학교가 열리고 있으며 13개정의 목회자부부가 참석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이성은 자매 환송예배에서 장영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눈물 속에 고 이성은 자매 영결식

뉴욕목회자 대거 참석...환송예배 설교 장영춘 목사

고 이성은 자매 영결식이 지난 14일 저녁부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렸다. 환송예배는 이회선 목사 인도로 김수태 목사가 기도하고, 장영춘 목사가 설교했으며, 어머니 이진아 사모와 친구 오드리가 조사했다. 또 지인식 목사가 조시 낭독, 동 교회 유진웅지휘자의 특주도 있었으며 최예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아버지 이만호 목사는 “딸 성은이가 ‘아빠 그 좋은 천국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안돼요?’라고 말했는데 ‘더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가야지’라고 대답했다”며, “35년 목회한 저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갔다. 오늘 조의금을 포함해서 성은선교장학재단을 세워 헌신하려고 한다. 존엄사 문제로 많은 도움을 준 뉴욕교계와 한인사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장영춘 목사는 “새 하늘과 새 땅”(계21: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아쉽지만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생활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성은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영원한 신랑 예수님 앞에 갔다”며 “이만호 목사님은 성은자매의 양육자이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집, 눈물과 사랑 아픈 없는 곳에 갔으니 영결하지 말라”고 말하고 “성은 자매의 삶의 모습이 뉴욕복음화의 밑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진아 사모의 눈물 섞인 조사가 낭독되자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적셨다.

15일 오전에 발인예배(인도 현영갑 목사, 기도 이성현 목사, 설교 한진관 목사, 조사 황경일 목사, 축도 김승희 목사)를 마치고 장지 파인론에서 하관예배(인도 허윤준 목사, 기도 장경태 목사, 설교 황동익 목사, 조사 양승호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를 드렸다.

이성은 자매는 1984년 6월16일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1996년 도미, UNC Chapel Hill 대학교를 졸업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일했다. 교회에서는 유소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에 적극 동참하며 많은 선교지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타니엘 전자성경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목회와 신학, 성경/전승기,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예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광대상, 광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성/명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방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광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연구회 최초 GDMARK 획득!
한국디자인 진흥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장납품업체 선정
이동기 자유로운 바퀴(360도 회전) 손잡이(17磅당 1돈) 신년특별 유공처리 - 설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 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절반의 성과... 범남가주이단대책 실무모임 12개 교계단체 간 MOU체결 외 실질적 활동엔 소극적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를 중심으로 한 범남가주이단대책 실무모임이 출범했다. 그러나 12개 교계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외에 이단대처방식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실효성에 의문점을 갖게 함으로 절반의 성과만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JI그랜드호텔에서 모임을 가진 범남가주이단대책 실무모임에서 진유철 목사는 “미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이단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곳의 이단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 우려를 표하며 “이들의 활동에 맞서기 위해 남가주의 12개의 지역교회와 기독교단체장들이 지난 1월 24일 모여 범남가주이단대책 모임에 대해 열린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미국헌법에서 허용한 종교의 자유로 인해 이단들의 활동에 대해 교계단체들이 나서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교인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박효우 교협수석부회장은 “이번에 출범한 범남가주이단대책 실무모임은 이단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활동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반에 MOU를 맺은 교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나가자”고



범 남가주 이단대책 실무모임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밝혔다.

이단대책 실무모임은 이단판별 지침서를 발표하고 지침서에 의거해 이단판별 및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침서에 의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경 이외의 계시를 주장하는 자 △믿음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강조하며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자 △이런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자기들의 교회만이 참 교회요 구원이 있다고 하며 자기들의 조직 속에 추종자들을 예수시키며 재정적인 착취를 하고 교리가 혼합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자신을 자기들의 집단으로 전도하려고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경우 △성경교하나 목자의 비리 등을 들어 지나치게 비판하며 거짓 유언 비어를 퍼뜨려 성도와 목사 간의 이간질 하는 자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는 자 △성경공부를 하자며 소속 교회 밖의 특정 공간으로 이끌려고 하는 자 등이다.

그러나 지침서 내용이 포괄적이며 일부 기존교회에 해당되는 사항

도 있는 만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작년 7월 구 수정교회에서 열렸던 신천지 이만희 집회에 피켓시위 등으로 집회참여자

를 축소시키는데 성공을 거뒀지만 한인1세보다는 차세대들과 백인과 라티노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힌 것에 대한 대책수립 결여, 그리고 8월 샌디에고에서 대대적으로 열리는



미주(LA)성시화 운동본부&홀리클럽 창립 10주년 감사예배에서 박희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말씀운동으로 오는 10년 변화 하자”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 & 홀리클럽 창립10주년 감사예배

미주(LA) 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 & 홀리클럽(회장 김경수 장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가 17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렸다. 주일강론 목사(KCCC 나사렛 책임)의 찬양과 송정명 목사(LA성시화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성현 목사(LA공동회장) 감사기도, 신기대 선교사와 김인하 선교사가 10주년 사역보고를 했다.

이날 다니엘 12장 3절을 통해 말씀을 전한 박희민 목사는 “10년간 성시화 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을 지켜주시고 작은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성도들의 동참에 감사드리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 목사는 “앞으로 10년 내다보며 말씀운동을 해 우리가 기록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미국이 변화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발전한 건 교회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요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해졌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우리를 통해 진정한 성시화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진유철 목사(남가주 교협회장)와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가 축하의 말을, 김경수 장로(미주홀리클럽 회장)가 ‘홀리클럽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말을 했으며 한기형 감동(상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또한 특별순서로 미국에 방문 중인 한국식도교회(박영민 목사) 드림물찬양선교단이 율동 찬양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CCM가수 주리 콘서트

한국의 CCM가수 주리 미 서부지역 콘서트가 22일(금)부터 3월 3일(주)까지 남가주지역 11곳에서 열린다. 일정은 △22일(금) 오후8시 글로발선교교회 △23일(토) 오전6시20분 일반인사랑의교회 △23일(토) 오후7시 사우스베이사람의교회 △24일(주) 오전11시 찬양교회 △24일(주) 오후2시20분 LA사랑의교회 △25일(월) 오후6시 스키도로 찬양팀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28일(목) 오후 7시 환돌선교회 청소년 집회 △3월1일(금) 오후 8시 남가주사랑의교회 △3월2일(토) 오후 7시 30분 데이비드라한인장로교회 △3월3일(주) 오전 10시 또감사선교교회 △3월3일(주) 오후7시 베델한인교회 프루마워십

▲문의: (213)435-3489 김희기 월드쉐어 팀장

제 2회 LA 무료개안수술 캠프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에서 제 2회 LA 사람의 무료개안 수술 캠프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안질환 환자들의 눈 검사 스크린을 한 후 3-5월 중 빈센트 병원에서 수술하게 된다. 눈 검사 스크린은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실시한다.

▲문의: (213)281-2617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작품모집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훈 목사)가 제 27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작품을 모집한다. 작품 소재는 자유이며 응모마감은 5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모집부문은 시, 수필, 소설, 동시 생활수기 등 다양하게 제출할 수 있다. 작품 제출처 1120 S. Harvard Bl #2 LA CA 90006. 한편 크리스찬문인협 3월 특강은 16일과 30일 작가의 집에서 갖게 된다.

▲문의: (213)249-0771

남가주빛내리교회 부흥사경회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New Blessing 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임찬양 목사(지구촌미래지도자 협의회 총재/전안 형통한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리는 부흥사경회는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땅의 거룩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다. 집회시간은 새벽 5시30분, 저녁 7시45분. ▲문의: (714)401-9874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세계대회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 김만풍 목사) 제 2회 세계대회가 3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하와이 임마누엘한인침례교회에서 '오직 진리만 위하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craaha@yahoo.com



APU에서 열린 KDMIn특강에서 이원우 칼빈대학교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남가주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주최 2013 연합찬양제에서 나성중앙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제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2013 연합찬양제 성황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회장 김정한 목사)는 2013 연합찬양제를 17일 오후 나성중앙교회(담임 이성도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효철 목사(예수비전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연합찬양제는 나성중앙교회(이성도 목사), 나눔동산교회(류창열 목사), 산타모니카 그리스도의교회(최태희 목사), 싸우스베이한인교회(안대진 목사), 예수비전교회(김효철 목사), 월서중앙교회(염규서 목사)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성상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무악기 교회와 유악기 교회 등 교단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월서중앙교회 순서에서는 염규서 담임목사가 톰 연주를 선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찬양제는 최홍철 목사(나성중앙교회)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찬양제가 열리기전 시작된 1부 예배는 김효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 최태희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연합회 회장 김정한 목사가 ‘신령한 노래’(창5:19-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안대진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APU KDMIn 과정 이원우 교수 특강 ‘시편과 지혜서에 나타난 영성’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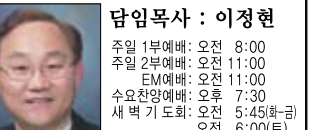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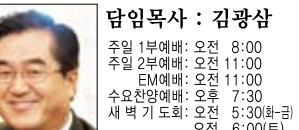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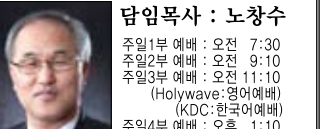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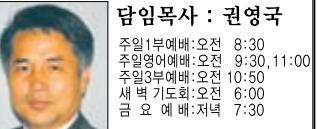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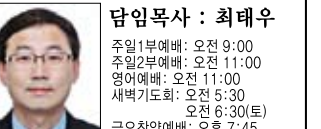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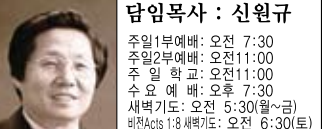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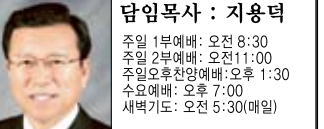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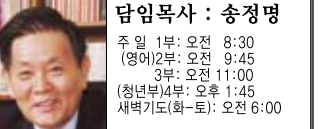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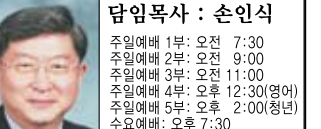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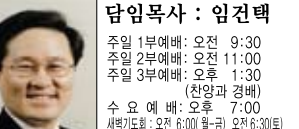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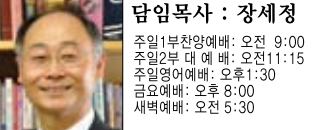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윌레스 박사) 한국어목회학박사 과정에서는 칼빈대학교 이원우 교수 초청 특강을 18일 오후2시 본교 웨스트캠пус에 위치한 신학대학교

에서 개최했다. 주제는 ‘시편과 지혜서에 나타난 영성’.

APU 총장 특별자문위원 박성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특강에서 이원우 교수는 “시편은 150편이

지만 다섯 권으로 나뉘져 있다. 시편이 다섯 권으로 나누어진 것은 토라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편전체가 오경을 완성하고 있다. 영성에 있어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고 깨닫는 것이다. 영성의 목적이 종착역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그는 “잠언은 여호와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려는 것이다.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할렐루야’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영성의 여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org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acusa@yahoo.com www.lafac.com Tel: (323)913-4498,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7:30 Tel: (213)413-18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CA 90057 www.laope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Ave, Agoura Hills, CA 9000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7 www.youngna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65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Pico-Fairfax)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30 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nban.org	남가주주둔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c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 영어예배) (KDC: 한국어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6:30(토)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8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가 돌아있는 우리의 통 속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번호 없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amsungchurcho.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7:0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jpeacechurcho.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949)854-4010 / E-mail: beb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벤크버릴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오전 6:3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7:00(대각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영양예배: 오전 11:1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경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군대 내 ‘무종교’ 장병 큰 폭 증가 진중세례자 수 동일 불구...대책 마련 시급

군대 내 ‘무종교’ 장병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독교의 진중 세례자(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자)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 장병 수는 가파르게 줄고 있어 군선교 양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방부 및 예장통합총회 군·농어촌선교부의 자료(그래프 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육군 장병 가운데 무종교인은 26만명으로 추정됐다. 2005년(8만 900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군선교 전문가들은 “최근 신세대 장병들을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동시에 종교자유 욕구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데 현상”이라고 분석하면서 “무종교 장병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무종교 장병들이 증가하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가톨릭과 불교 등 종교를 가진 장병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장병 수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14만명 선으로 2005년(19만 6081명)과 비교할 때 약 3분의 1이 빠져나갔다. 65만명에 달하

는 육군 장병 중 육군 장병 비율이 80%(5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육군 전체 기독교 장병들의 감소 및 무종교인 증가세는 전반적인 추세로 보인다.

특이사항은 기독교 장병 수의 가파른 감소폭과 비교할 때 진중 세례자 수(육·해·공군 기준)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이에 대해 군선교 관계자는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 중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밝히는 장병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초 육군 모사단 신병교육대의 한 중대가 실시한 성례(세례·영세·수계) 인원 을 조사한 결과, 중대 총원 483명 중 세례자 327명, 영세자(가톨릭) 23명, 수계자(불교) 178명으로 총 613명으로 집계됐다. 중대 총원을 130명이나 초과한 것. 다시 말해 이들 장병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종교 성례식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지난 한 해 모두 19차례 치러진 이 부대의 성례식에서 성례 인원 이 중대 총원의 절반선 횡수는 8차례. 매회마다 적게는 60여명, 많게는 130명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김대덕 사무총장은 “종교가 없던 장병들이 호기심에 다종교의 분위기나 교리 등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며 “진중 세례에 대한 효용성과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신앙양육 시스템을 개발·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군·농어촌선교부 서광욱 총무는 “세례만 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양육을 강화하는 군선교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종교 장병이 점차 늘어가는 데 대한 교계차원의 선교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선교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군종목사단과 함께 개선된 양육 시스템(일명 ‘선사인 캠페인’)을 도입·적용 중이다. 기독교 장병들이 훈련소를 마치고 자기부대(지대) 배치된 후 신인입 장병을 위해 3개월간 신앙멘토로 나서 예배참석과 병영생활 상담 등의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연합회 측은 이 캠페인을 전국 군교회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종교자유백서’ 발표

북한에서 발생하는 종교박해 사건의 절반은 기도나 예배 등 종교활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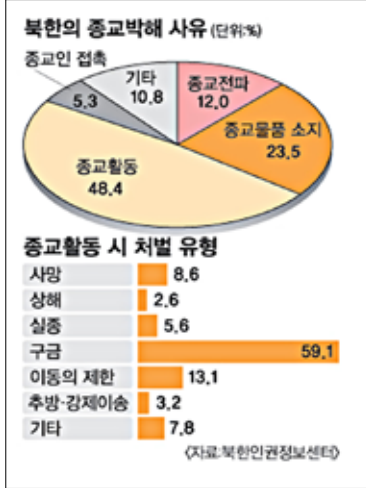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3일 ‘2012 북한종교자유 백서’를 발표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 7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0건의 종교박해 사건이 파악됐으며 이 중 ‘종교활동’에 의한 경우가 465건(48.4%)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책이나 십자가 등 ‘종

교’에 그동안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 성경을 본 탈북자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3.7%와 4.7%, 2009년 5.1%, 2010년 5.6%, 2011년 8.1%, 2012년 8.6%로 증가 추세다. 국내외 교회와 북한 선교단체들이 비밀리에 북한에 보낸 성경 유입량이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면 처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5.7%에 달했다. ‘모른다’는 답은



위험으로 인식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종교 행위에 대한 처벌

종교박해 사유 ‘예배·종교물품 소지’ 순... 적발 땀 62%가 정치범수용소로

교물품 소지’에 의한 박해가 226건(23.5%), ‘종교전파’에 의한 박해가 115건(12.0%), 중국 등 제3국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과 접촉했거나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인물과 만난 경우 등 ‘종교인 접촉’에 의한 박해가 51건(5.3%)으로 조사됐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가’란 질문에는 99.3%(6963명)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허용한다’는 응답은 0.4%(26명)에 불과했다. 특히 1997년 이전 탈북자부터 2012년 탈북한 응답자까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응답

23.8%였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종교활동 시 처벌 수준은 가장 낮은 처벌인 ‘노동단련형’이 2.6%, ‘교화소행’(남한 교도소에 해당) 12.0%,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형’은 61.6%에 달했다.

종교박해 사건의 처벌 유형은 구금이 59.1%로 가장 많았고, 이동 제한(13.1%), 사망(8.6%), 실종(5.6%), 추방 및 강제 이송(3.2%), 상해(2.6%)가 뒤를 이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은 종교의 확산을 체제

수준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접촉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공개적인 비밀 종교활동이 일부나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활동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4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2012 북한의 종교현황과 종교정책’ 및 ‘북한의 종교자유와 박해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새정부 총리·장관 후보자 “불교는 되고 기독교인은 안돼”

불교계의 또 다른 종교편향 논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과학’을 연상시킨다며 종교편향 논리를 폈던 불교계가 이번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황당한 종교편향 주장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기독교인의 종교편향을 우려하면서도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불교 신도라며 적극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계가 두 후보자를 종교편향으로 몰아가는 근거는 ‘몰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분당 할렐루야교회 안수집사로 과거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황 후보자와 함께 기독교계 로펌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또 황 후보자는 검찰 신우회를 주도하고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활동했으며, 교회법 서적을 출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계는 이처럼 기독교 신자로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까지 기독교 신자라면 차기 정부의 공직자 종교편향

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교계는 불교 신도인 후보자들에 대해 과거 포교 활동 등을 소개하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군불교총신도화장을 역임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한 독실한 불교 신자로 2007년 12월 현직 장군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근무시간에 반야심경을 직접 강요한 바 있다. 불

교계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서남수 위덕대 총장에 대해선 “위덕대는 1996년 전각종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종립대학”이라며 “서 총장이 30년 전 인천 용화사를 통해 불교를 접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법회에 참석하고 불교공부를 하는 등 불자의 삶을 이어갔다”고 치켜세웠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불자 108인’ 중 한 명으로 2010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템플스테이 발전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한나라당 전통문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불교계와 정부 여당을 잇는 소통의 메신저’로 활동했다.

로 교회에 뜻하지 않은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면서 거취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당회에 일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건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 논문 문제는 덮겠다. 48시간 내에 사임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직한 선교사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로 장교가 건축 문제를 사임의 이유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며서 “그런데 그것은 오목사를 사랑하고 언젠가 그의 재기

‘목회자 납세’ 공동대응 나섰다

한교연·한장총·교회연론회·미래목회포럼 ‘대책위’ 구성

교계 4개 단체가 힘을 모아 목회자 과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연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등 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 텔에서 ‘한국교회와 세금’을 주제로 한국교회정책회의를 갖고 ‘목회자 납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한장총 상임회장 유만석(수

원 명성교회) 목사를 선임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목회자 납세 문제에 대해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교계의 의견 수렴과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5일까지 이틀간 열린 정책회의의 첫날 토론회에서는 목회자 과세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종교인도 과세에서 예외가 아니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하지만 교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의견은 같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용주(서울신천교회 장로)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법 차원이 아니라 근본 규범인 신앙의 자유와 결부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연 목사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은 무너지고 세무사찰 등을 통해 정부가 교회에 과도하게 간섭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세를 지지하는 측에선 헌법상 납세의 의무와 대사회적 신뢰 등을 들어 세금 납부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제 시의와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장형 백석대 교수는 “교회와 사회의 분위기는 ‘찬반 논의를 넘어 어떻게 납세할 것인가’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나 법에 끌려가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납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형승 연세대 교수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교단 차원에서 세금을 공제해 일괄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논문표절의혹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최근 불거진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3일 당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당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위는 장로 7명으로 구성되

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논문 표절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사후 처리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오 목사는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대(현 노스웨스트대)에서 논문 ‘신약성경에 비추 본 제자 훈련 실교’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오 목사는 지난 10일 열린 교회 주일 예배에서 “제 불찰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구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645-7700, Fax, (0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남가목예배1부: 오전 7:40 주일남가목예배2부: 오전 9:30 주일남가목예배3부: 오전 11:30 주일남가목예배: 오후 2:00 주일남가목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02)31-984-2939, Fax, (0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면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83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흥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9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0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4)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0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을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복동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전 5:30 주일5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5,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02)898-9808, Fax, (02)3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137-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동화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송파구 인아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253-1004, Fax, (03)253-10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의동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수유동 25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주요예배: 오전 7:30 주요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예배4부: 오후 2:30 주일예배5부: 오후 7:30 주요예배: 오전 5:30/6:30/9:00 주요기도회(매일)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양곡동 415-155(영등포도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52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노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요예배: 오전 7:00 주요기도회: 저녁 7:40 주요예배: 오후 7:00 주요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3-9191, 사택, (82)2-3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398-7740 서울시 미추홀구 서동동 140-03(1)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주일남예배: 오후 2:00 주일남예배: 오후 8:00 주일남예배: 오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r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주일6부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요기도회: 저녁 9:00 주요예배: 오전 10:30 주요예배: 오후 7:00 주요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E-mail: hanji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ón-PARAGUAY



아빠의 선물 (4)

정정숙 박사
(배밀리터치 원장)



죽음, 선물입니다!

목이 메어 울먹이던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이미 다 했는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비슷한 꿈을 꾸었노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을 더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속이었는데 새벽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남편이 죽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목에 차고 있던 호흡보조기 벤틸레이터도 달지 않고 편한 자세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남편을 뻔히 들여다보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전혀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침착한 자세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그 때예요? 지금 저희 남편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남편의 삶과 죽음을 맡기면서 나는 이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생명도 죽음도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미리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아셨죠? 주님!” 나는 특히 가까운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와 관련한 꿈을 미리 꿈쩍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내 남편과 아무 것도 준비는 상태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90:12)라고 기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날을 가르쳐달라는 그 기도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 안다면 그 날들을 가장 소중한 곳에 쓸 것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꿈 이야기를 나는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젠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내 몸의 각 부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가져 버린 느낌이야. 목소리도 현저하게 작아져 며칠 있으면 말도 못할 지 모르겠어. 그러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바쁘고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시간을 좀 내줘. 급한 약속 아니면 저녁엔 집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그다음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도 쓰고 싶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지도 몰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자. 아무래도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남편을 보며 살아야 할 때는 살아야 할 이유와 욕망과 용기를 주시고, 죽음 즈음에는 거부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함께 차근차근 그의 죽음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목엔 음성이 몇 날 며칠 동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본 슬픔”의 저자 C. S. 루이스는 50대가 넘어 만나 뒤늦게 결혼한 아내의 너무 이른 죽음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나는 ‘너무 완벽해서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음울할 정도로 비관적일 수도 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물들이 서로 행복한 모습을 보자마자 그를 제지하셨거나 아니면 그분이 각 테일파티의 여주인인 양 초대된 사람 중 그들이 진정한 대화로 빠져드는 신호를 보이자마자 그들을 갈라놓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이는 ‘그 나뭇의 완벽한다면 그 날들을 가장 소중한 곳에 쓸 것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꿈 이야기를 나는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젠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내 몸의 각 부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가져 버린 느낌이야. 목소리도 현저하게 작아져 며칠 있으면 말도 못할 지 모르겠어. 그러기 전에 준비를

나의 남편은 책을 읽으며 루이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그가 대신해서 이야기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끔씩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죄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오래 살고 싶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고 질투가 나셨을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그의 이야기 속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C. S. 루이스는 또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고통으로 끝난다. 우리가 불완전한 탓에 사랑이라는 멋진 혜택을 누리는 대신, 그 대가로 고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사랑이 클수록 아픔도 크며 믿음이 깊을수록 더 가혹하게 성체를 할란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고통으로 끝납니다. 만나서 사랑할 때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 만남이 영원까지 갈 수 없기에,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그 헤어짐이 사별이든 이혼이든,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닐까요? “헤어지기 위해 우리는 만났고 고통 받기 위해 우리는 사랑했다.”

이틀에 걸쳐 그는 나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귀를 곤두세우고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나마 입으로 쓰는 편지는 기침이 자주 나와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금의 이 고통스런 현실을 받아들이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목이 메고 나는 울음을 삼키면서 그의 편지를 한 자 한 자 받아 적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8년 동안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가 발견한 삶의 열쇠를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눅10:27).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 열쇠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신교 편지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설날이네요. 어린 시절 설레며 기다리던 설날입니다. 먼 이국땅에서 설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들을 맡깁니다. 아름다운 풍속들이지요! 무척이나 추웠던 기억, 세배하러 다녔던 기억들... 이러한 정겨운 모습들을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은 “아이들이 설레며 기다리고, 때때 옷 입고 흥겹게 민속놀이를 하는 축제는 같은 날, 세배돈 같은 황홀한 선물이다”라고 있는 날”이라고 기록하면서 “설날이 마치 자신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라고 기록했다고 하네요.

선교사는 문화와 복음에 정통해야 합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세계와 삶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변치 않는 복음을 문화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감도 문화(High Context Culture)” “저감도 문화(Low Context Culture)”라는 말들을 선교계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고감도 문화는 감성이 규정보다 앞서는 문화권으로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감도 문화는 규정, 즉 법규, 정책, 매뉴얼 등이 감성에 앞서는 문화라고 보면 되지요.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화적 차이이지요.

일반적으로 한국, 중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의 비서구권 나라들은 고감도 문화권에 속하겠지요. 그리고 서구 선교사, 그리고 미국 1.5세 및 2세대들은 저감도 문화라고 보면 되지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거나 배경이 다른 분들과 사역을 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때가 있지요. 서로 다른 문화적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이지요. 비단 타문화권 사역 현장에서 뿐 아니라 같은 선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답니다.

저는 고감도 문화권 출신 선교사이면서 고감도 문화권에서 사역하므로 “문화적 불편과 오해”를 느끼지 않지요. 그러나 선교를 함께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로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네요. 선교사들과 동역/지원하는 분들은 이러한 아주 세심한 부분에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소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사역을 하면서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힘들 때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였지요.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였지요. 직감으로 살았던 시간들이었지요. 참으로 미련(?) 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방문 중 사랑하는 동역자 집사님으로부터 고가의 보청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소

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듣지 못하던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주 “세미한 소리”(왕하19:12)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미한 육신의 소리 뿐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육적으로 소통케 하옵소서!

교회 사역

·몽케카구아교회 헌당예배 :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완공된 몽케카구아교회(김상규 목사님과 권정숙 사모님, 뉴욕선교교회 김명국 목사님, 상향중앙장로교회 권혁천 목사님 후원) 헌당예배를 1월 13일 은혜가운데 미국에서 이원상 목사님, 이영자 사모님, 김상규 목사님, 권정숙 사모님, 진금섭 장로님, 최순자 권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주시고, 축사해주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몽케카구아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

니다.
·2013년 교회 개척 및 건축 사역을 위한 기도 : 올해 2013년에는 세보이타 교회와 푸에블로 비에호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세비이타교회는 캐나다 밴쿠버 한 사랑교회에서 건축을 지원해주시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3월 중순부터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푸에블로 비에호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 가운데 후원을 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12,000불 예상).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하여 나랑호, 우니온, 산로렌조, 몬테베르데, 몬테베르데 우니온 지역을 선정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

·La Escuela de la Semilla de Mostaza(겨자씨 학교) : 아자꾸알과 학교에서는 현재 35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몽케카구아 교회에서는 35명이 지난 1월 7일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Randy Seo 선교사님, 아디라 선생님, 브렌다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학교에서는 렌카 인디언 마을의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영성과 지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말씀과 영어, 음악, 컴퓨터, 미술 등 매일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페드로술라 Fuente de Luz 학교 : 이번 학기부터 영어와 컴퓨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컴퓨터를 후원해주신 최일식 목사님, 아틀란타 실로암장로교회 이효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가 세워진 지역은 도시빈민지역인데 갭단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하여 실력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가족 단기선교

성탄절을 맞아 12월 25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다섯 가정이 가족단기선교로 렌카 마을을 섬겨 주셨습니다. 정말 목적있는 방학(Vacation with a purpose)이었습니다. 몽케카구아교회에 전기공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CPC팀 모두에게!
장세균 선교사 segyunjang@gmail.com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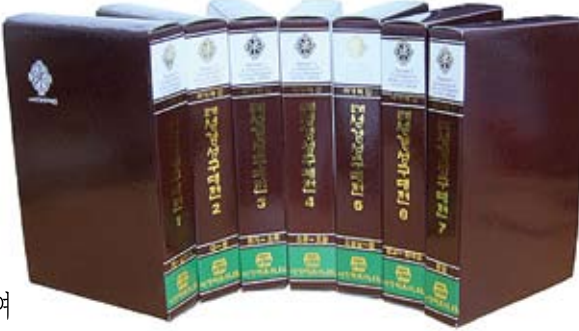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 1권:가~납하스
 - 2권:다~못
 - 3권:못가~소위
 - 4권:소위~오늘
 - 5권:오늘날~종
 - 6권:종교~히데겔
 - 7권:판람
-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 3 한글성경 성구들이 이해해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29)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아개념”(Self-Concept/Image)과 관련하여 전통 전수 교육의 당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 확립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이것이 바로 전통 전수 교육의 당위라는 것입니다.

자아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연관된 것이라면, 자아개념이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존재 가치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연관된 것입니다. 즉 자아개념은 가치중립적인 자아정체성과는 달리 일종의 자신에 대한 상, 감정 및 심리적 평가로서 다분히 “가치 평가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개념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등의 수식어를 동반하여 표현되며 따라서 “자아 존중감”(self-esteem), “자아 가치감”(self-worth), 그리고 “자아 유

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다양성 실현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으나, 사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다양성이 인정되기보다는 인종차별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때로는 아주 지능적으로—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차별과 무시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굴색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관습과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고 즐기는 문화적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과 가치판단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때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론 관계맺음의 양상과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지요. “다름”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 그 “다름”은 “틀림”으로 인식되고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을 미국 친구들에

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의 가치와 다름의 미학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전통 전수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실체에 대한 공동체적인 지지와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배경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새롭게—보다 긍정적으로—가치 있는 존재들로—평가하는 근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은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르다해서 차별받고 무시당해왔고 그래서 나의 민족과 문화가, 그리고 내가, 못나고 열등해서 그런가보다 여겨왔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며 다르기 때문에 더욱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그래서 가치 있는 것

건강하고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확립에 핵심적 역할
민족적 인종적 실체에 대한 공동체적 지지격려 경험

능감”(self-competence) 등의 개념들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설명되어 지곤 합니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자아 내부와 외부(사회, 환경 등)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이 되는데, 특히 외부로부터의 경험과 외부의 의견 및 평가 등이 그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자녀들의 자아개념은 과연 어떠한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구축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 한인교회와 사역자들은 아마도 이미 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많이 양보해도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이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해 온 자아 외부의 사회적 상황은—한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그들에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회적 상황이란 차별 당하고, 소외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의미하지요. 미국사회가 이미 법과 도덕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불법이요

견주어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어서 어이 없게 낮고 형편없는 자존감, 자아가치감, 그리고 자아유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을 가치 없고, 능력없는 존재로 여겨왔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은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형편을 헤아리고 함께 고민하여 그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잠재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교육하고 독려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입니다(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및 은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배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한국적 문화의 우수성과 독특성에 대해 새

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친구들과 민족적/인종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다른 문화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면, 이는 우리 자녀들 자신들의 잘못이나 못남이나 가치 없음 때문이 아니라, 차별을 한 그들의 잘못이며 못남이며 가치 없음이라는 용기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민족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차별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고 못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보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오히려 이중문화적 존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및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의도적으로 전통 전수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양의 문 되신 예수(요5:1-18)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뜻에는 사방에서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가장 민첩한 자가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나머지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

다. 사지가 마ف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던 불공평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중요말씀은 2절 “양문 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돼있고 사방 8개 문으로 돼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화 들고 믿는 자(요5:19-29)

교회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고침 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어째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 가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면서 나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넘겼습니

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1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나음이 오히려 평생 고통의 아킬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 생명의 떡 되신 예수(요6:1-15)

디베라 바닷가에서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5천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이상했겠지만 끝없이 계속 나누게 되는 오병이어의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표적의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시고 예수 안에 참된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35절). 54절. 사람들은 스스로 풍성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소망이 없는 기갈과 허덕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영적 기갈을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목 두려움이 기쁨으로(요6:16-35)

제자들은 파도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물위로 걸어오는 능력자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믿음은 내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받을 은혜와 축복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구원과 소망,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영광인 것입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엄청난 축복과 기적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당장에 조그마한 파도에도 또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요6:60-71)

요6장 첫 부분과 마지막 말씀은 재미있는 대조적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르르 몰려들었던 군중들의 모습으로 시작된 모습이 나중에는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후에 인기는 절정에 달해 그 많은 무리가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6장 말미에는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먹고 마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풍성함을 좇아왔던 무리는 다 떠났고,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남겨졌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과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토 자기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요7:1-24)

인생의 성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어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 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 교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존재와 목적을 이뤄 지으신 하나님을 만족하시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때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초간편 복사기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I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강사 •



김성길 목사
• 시온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준 목사
• 발행인



권테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항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현 목사
• 풍년포 장로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만영 목사
• 천구들교회



김에전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준식 목사
• 김재 중앙장로교회



김구경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 (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더욱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교회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개		
선금	OK#	
잔금	OK#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민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제1회 남가주 미스바대성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는 일보다 더 큰 일을합니다.”



강사: 박보영 목사
(인천방주교회)

일시 : 2013년 3월 1일(금) - 3일(주일)

장소 : 동양선교교회당

주관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첫째날 3/1

저녁 7:30

둘째날 3/2

새벽 5:30

저녁 7:30

셋째날 3/3

오후 4:00

미스바대성회 조직

대회장 진유철

고문 노창수, 민경엽, 민종기, 박성근, 박희민, 변영익, 손인식, 신승훈, 이운영, 한기홍, 홍영환, 한종수
준비위원장 박효우

준비위원 강용순, 김성민, 박형은, 우광성, 이동준, 원영호, 정우성, 지윤성, 황의정

실행위원장 양경선

실행위원 강순영, 김철수, 이일, 조요한, 차권희, 홍성관

(가나다 순)